



2021년 지역별 건설시장 전망 1.

- 아시아 -

2020.12.14

정지훈 책임연구원

Contents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2)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

2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지역별)

3 2020년 해외건설시장 동향

- 1) 해외건설 수주 현황
-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건설 애로사항
- 3) Oil & Gas 분야 투자 확대 기대 및 중동 발주 여건 호전

4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

- 1)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In Depth Analysis) 방법 및 기준
- 2)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 1, 2

5 해외건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신기술 Trend

- 1)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향상의 당위성
-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 3)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
- 4) 우리 기업 주요 신사업 계획

6 결론 및 시사점



Part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경제 성장)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효과로 '21년 성장률은 '20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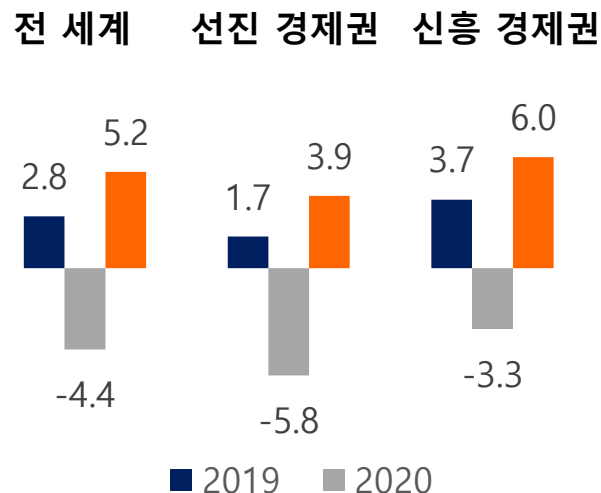
- 미국, 유럽 등 코로나19 충격이 큰 선진 경제권 3.9%, 중국, ASEAN-5 등 신흥 경제권은 6.0% 성장 예상

(경기선행지수) 향후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99.4)으로 개선 중(4월 92.8→10월 99.0)

- 코로나 n차 확산 우려가 지속되나, 백신 개발·치료제 공급 등은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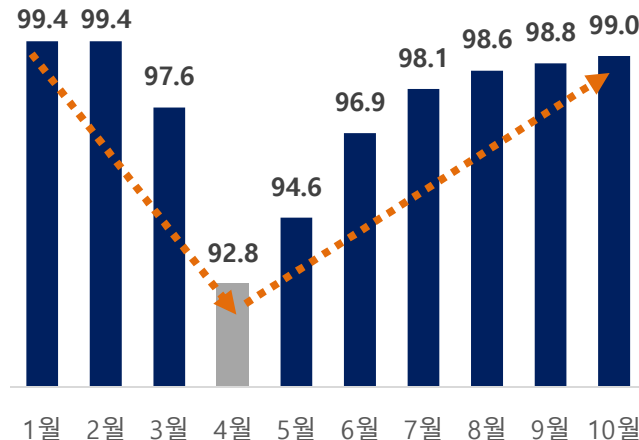
(부채 리스크) 단,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지난 해말 대비 45% 포인트 급증함. 이는 특히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높이면서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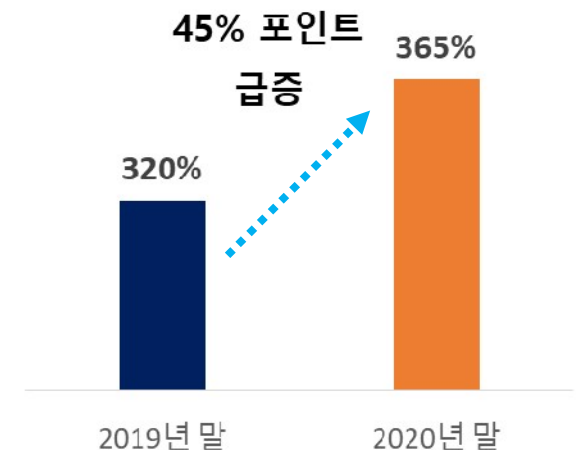
[출처 : IMF, ICAK 정책지원센터]

OECD 경기선행지수



[출처 : OECD, ICAK 정책지원센터]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 전망



[출처 : IIF(국제금융협회), ICAK 정책지원센터]

2)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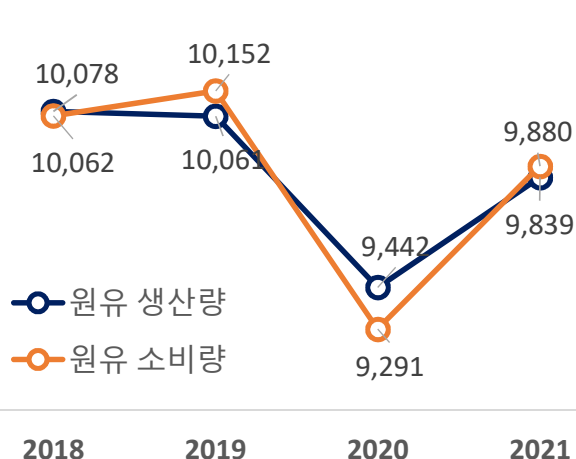
(공급 과잉 해소) '21년 경제 정상화 기대 및 원유 수요의 회복세로 '20년에 나타난 공급 과잉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

- '21년 일일 원유 소비량은 '20년 대비 6.3% 증가한 9,880만배럴, 원유 생산량은 4.2% 증가한 9,839만배럴로 전망
- 생산량은 2분기 10,150 만배럴로 정점을 기록 후 9,290~9,88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 전망. 소비량은 4분기 10,020 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소폭 상승) '21년 1분기 40.2불, 2분기부터 45.5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WTI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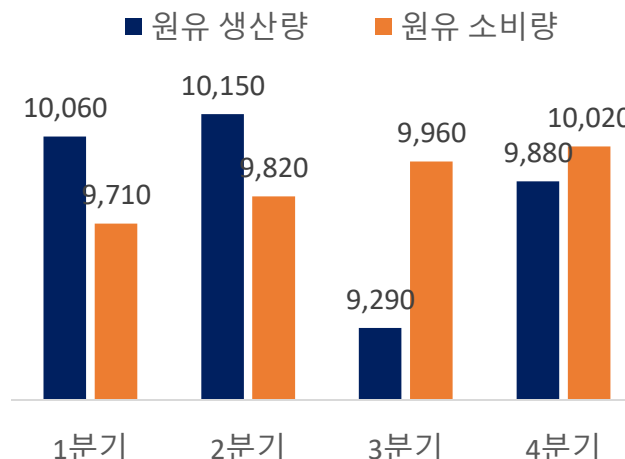
- 전 세계적인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 가속화, OPEC+의 감산 계획 지속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

연도별 수급 추이, 전망(만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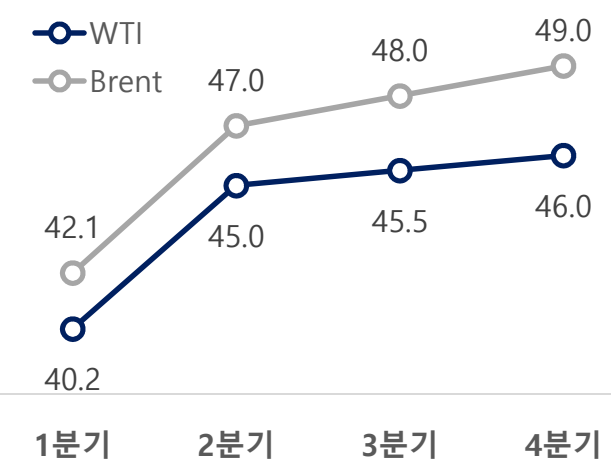
[출처 : IMF, ICAK 정책지원센터]

'21년 분기별 수급 전망(만배럴/일)



[출처 : OECD, ICAK 정책지원센터]

'21년 국제유가 전망(불/배럴)



[출처 : IIF(국제금융협회), ICAK 정책지원센터]



Part 2.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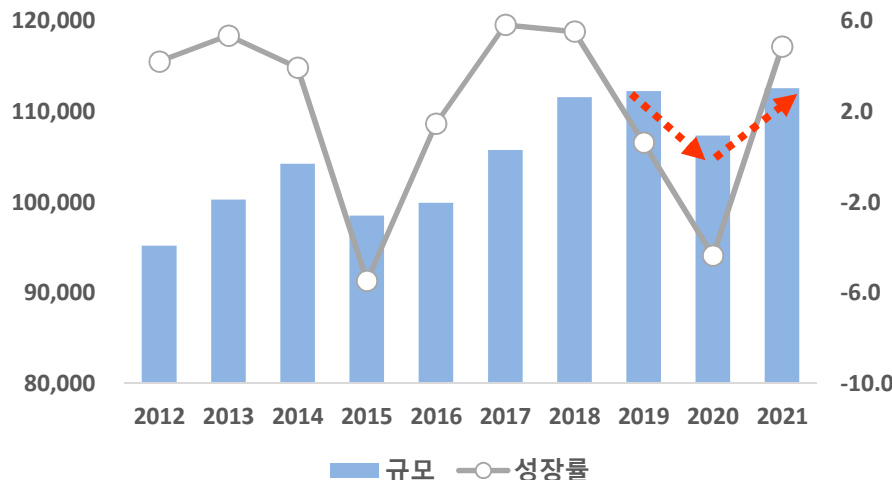
1)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시장 점진적 회복)글로벌시장 조사기업 HIS Markit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세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 '21년에는 '20년 대비 4.8% 성장한 11.3조불로 전망

- 미국·유럽 등 주요국을 비롯해 코로나19 n차 확산 리스크는 여전하나, 2020년 상반기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봉쇄·이동제한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점진적인 경제 성장, 건설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각 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망
- 이에 따라 신규 발주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기존 현장의 정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뉴노멀 심화) 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 유럽·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New-Normal)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아시아	53,644	57,183	6.6
중동	4,713	4,795	1.7
중남미	4,278	4,514	5.5
아프리카	1,073	1,096	2.2
북미·태평양	18,543	18,142	-2.2
유럽	25,068	26,789	6.9
세계	107,318	112,519	4.8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1)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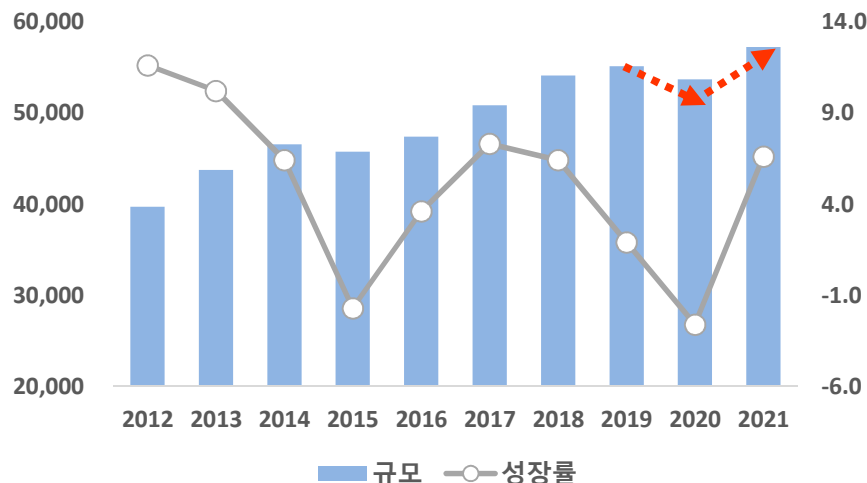
(아시아) 세계시장의 51.4%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20년 대비 6.6% 성장한 5조 7,183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베트남), 3개의 공항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태국), 신수도 이전사업, 25개의 신공항사업(인도네시아),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 용량(capacity)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 전망(싱가포르)

(중동) 세계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중동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1.7% 성장한 4,795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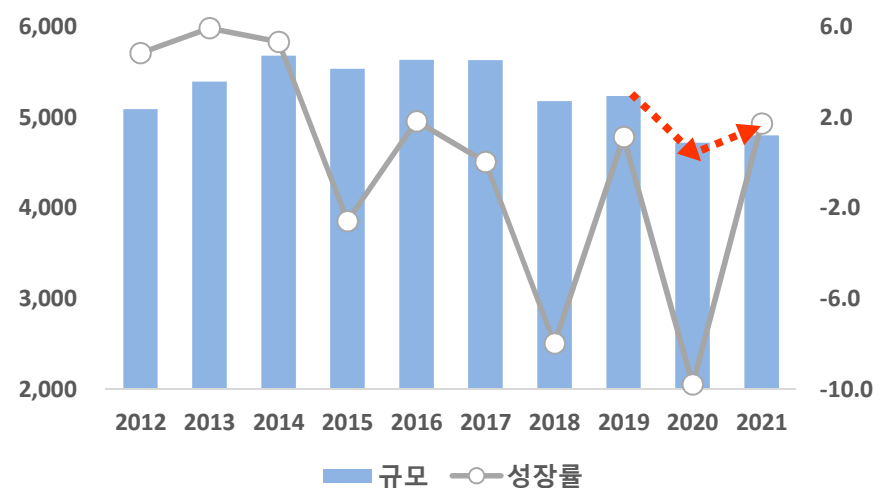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탈석유경제체계 추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33억불을 토목, 건축, 민생사업에 투입할 계획(사우디아라비아), North Field Expansion(가스전 사업)을 비롯해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카타르),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UAE)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중동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1)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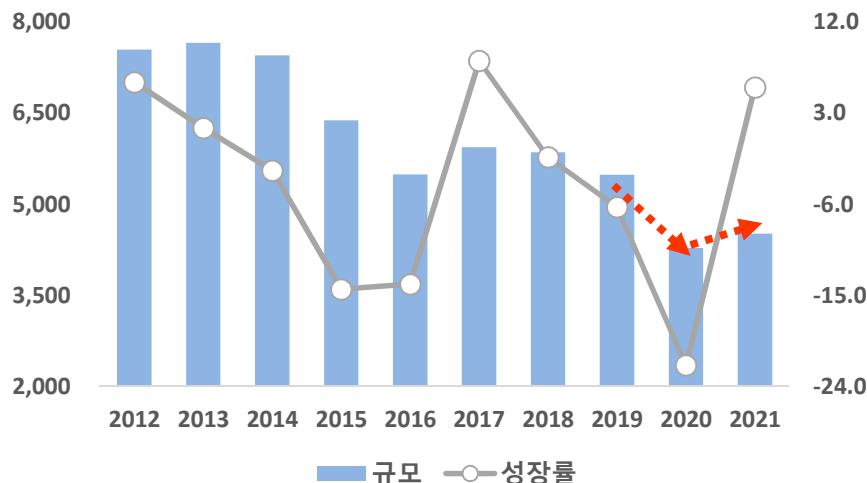
(중남미)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20년 대비 5.5% 성장한 4,515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향후 5~6년간 60억불 규모의 철도망 프로젝트 투자(브라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보고타, 칼리, 메데인 등 6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콜롬비아),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및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1억불)(페루)

(아프리카) 세계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2.2% 성장한 1,096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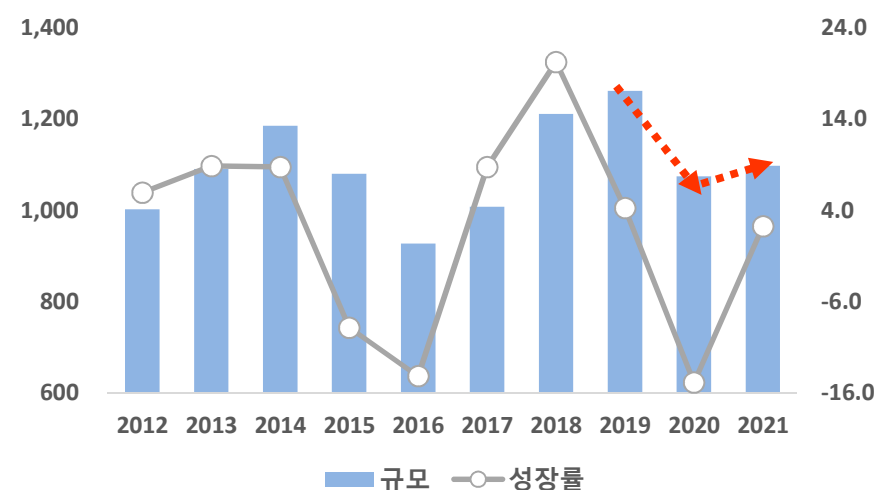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30만호 주택 건설사업, 도로 사업(나이지리아), 향후 10년 동안 25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 65개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 투자 예정(남아공), VISION 2030 관련한 LAPSET(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케냐)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1)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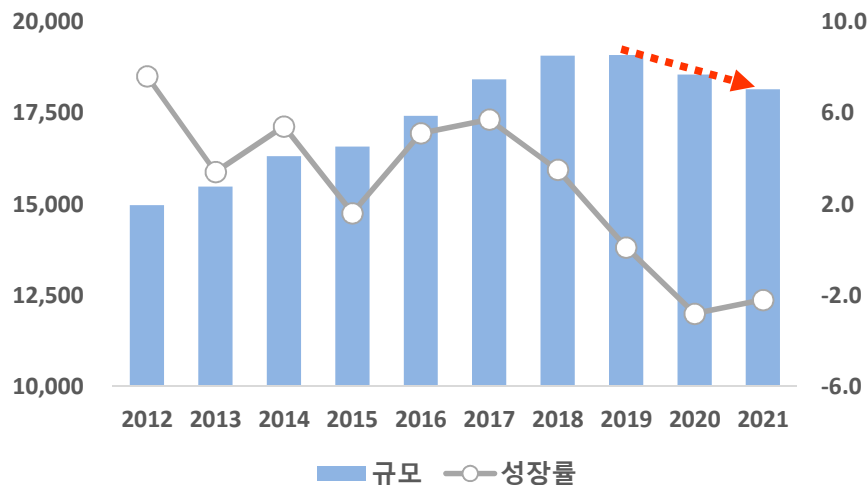
(북미·태평양) 세계시장의 16.1%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은 '20년 대비 2.2% 역성장한 1조 8,142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4년간 2조불을 재생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 교량,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 하는데 2025년까지 1.5조불, 2040년까지 5.0조불이 소요(미국),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캐나다)

(유럽) 세계시장의 23.8%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6.9% 성장한 2조 6,789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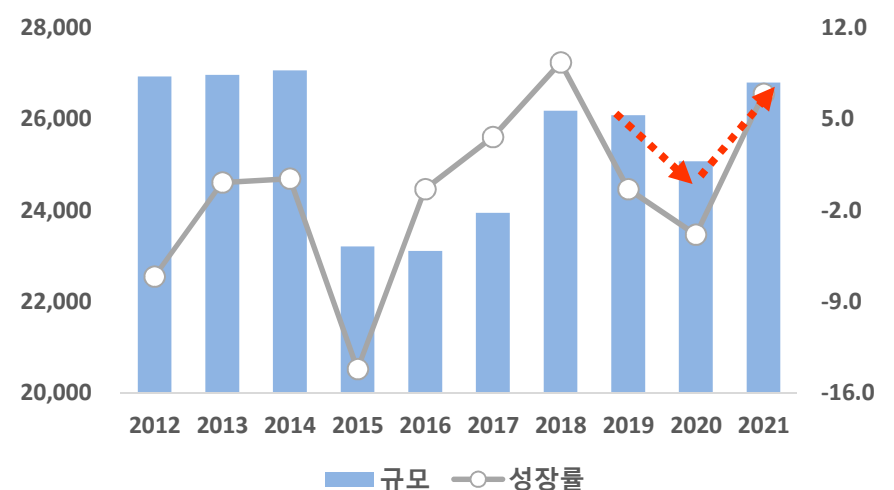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Tri-City 우회도로 PPP사업 및 발트해 연안의 육상풍력발전소(폴란드), 31억불 규모의 키예프 우회도로, 흐멜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확장사업(우크라이나), 2030년까지 40여개 신규 병원 건립 사업 등 (영국)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유럽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Part 3.

2020년 해외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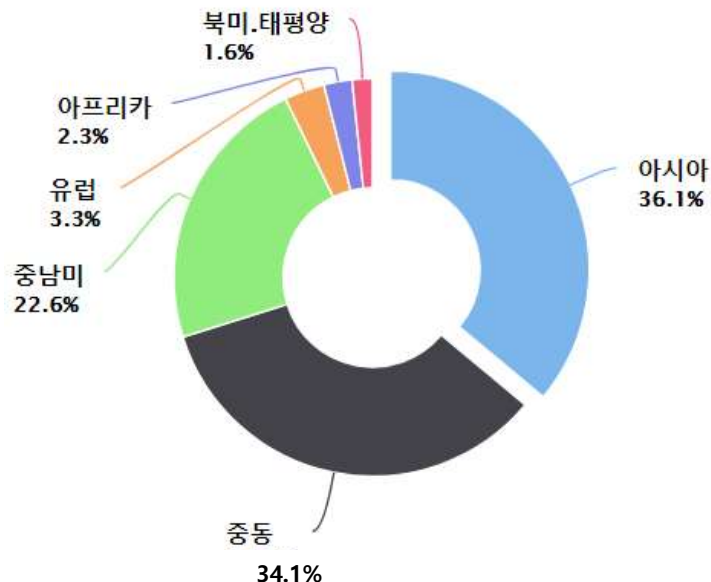
1) 해외건설 수주 현황

(코로나19 위기 속 선방) 올해 수주액은 저유가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발주 연기·감소, Lockdown 우려 속에서도 '19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306억불 기록 중(12.4일 기준)

- (지역별) 아시아(108→110억불), 중동(44→104억불), 중남미(1→69억불) 등
- (공종별) 산업설비(91→172억불), 토목(37→69억불), 건축(37→49억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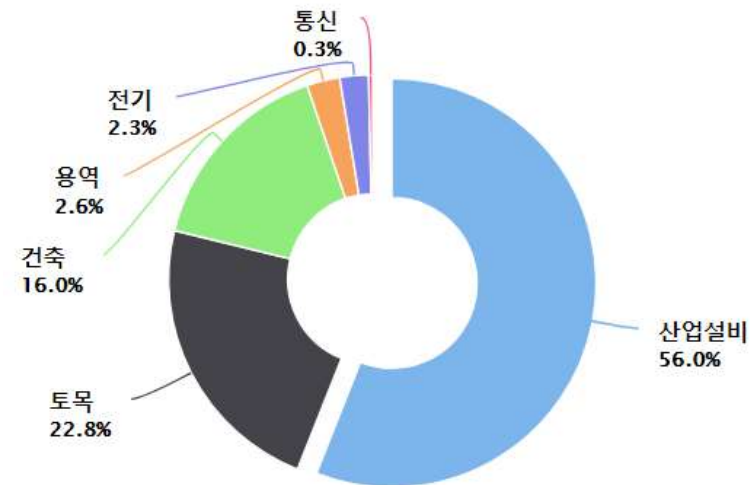
우리 해외건설기업이 정부, 공공기관이 “팀코리아(Team Korea)”를 이루어 총력을 다 한 결과, 연초 중동지역 대규모 토목·플랜트(산업설비) 수주를 시작으로, 11월 중남미지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 성공

지역별 비중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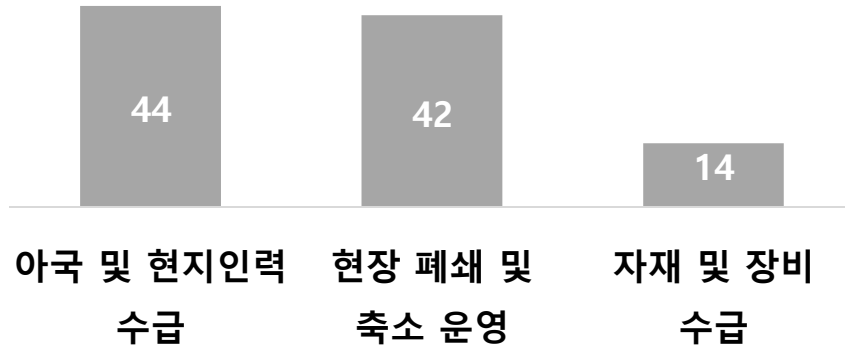
공종별 비중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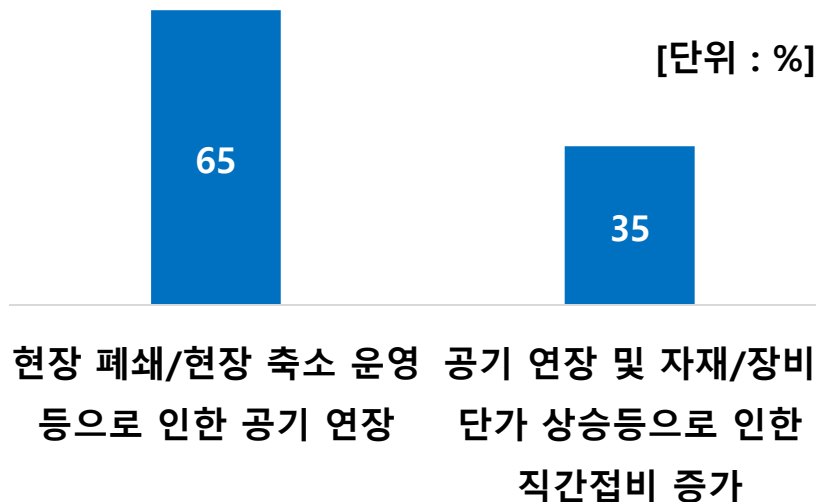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건설 애로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우리기업 주요 애로사항(단위: %)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ICAK 정책지원센터]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처와의 계약 변경 협의시 예상 문제점(단위: %)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ICAK 정책지원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건설사 애로사항(단위: %)

구분	내용	결과
1	회의·협상 등 취소	88
2	착공 지연	79
3	계약체결 지연	78
4	현장 운영 중단	68
5	노동력 부족	54
6	사업 취소	49
7	원자재 부족	42
8	장비 부족	33

[출처 : GlobalData(202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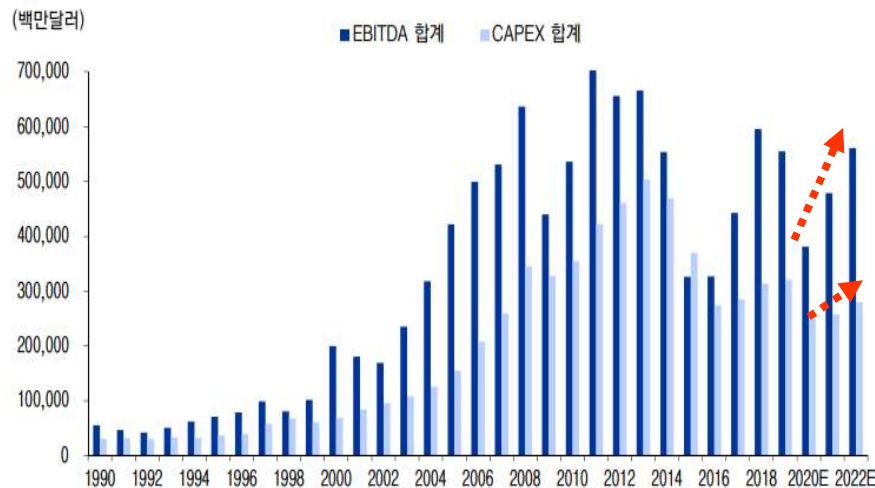
- 영국 Global Data가 코로나 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 건설 분야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Agree & Strongly agree' 라고 응답한 결과를 취함. 수치화함

3) Oil & Gas 분야 투자 확대 기대 및 중동 발주 여건 호전

(Oil & Gas 투자 확대 기대) 플랜트 수주의 전방 산업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21년부터 CAPEX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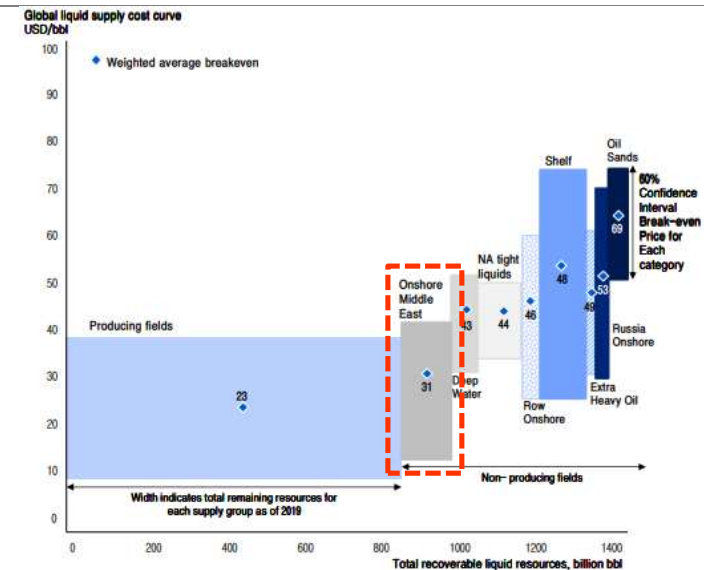
(최악에서 벗어난 중동 발주 여건) OPEC+의 감산 지속, 중동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중동 발주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힘

상위 30개 에너지사의 EBITDA, CAPEX 전망



[출처 :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ICAK 정책지원센터]

원유 생산 방식별 손익분기가 되는 유가 수준



[출처 : Rystad Energy, 이베스트투자증권, ICAK 정책지원센터]

*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현금흐름의 총합을 의미

* **CAPEX**(Capital Expenditures) : 자본적 지출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



Part 4.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

1)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In Depth Analysis) 방법 및 기준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국가별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성, 리스크 등을 평가,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 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항목별 분석 기준)

1. Economic Risk('21년 경제성장률)

평가	기준
Positive	If '21년 경제성장률>0%
Negative	If '21년 경제성장률<0%

2. Pipeline Size(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평가	기준
Positive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10%
Neutral	If 5%<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10%
Negative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5%

3. Risk Assessment(단기, 장기 Risk Score)

평가	기준
Positive	If 단기, 장기 Score <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8.9, 6.1)
Neutral	If 단기, 장기 Score, 2개 항목 중 하나 >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
Negative	If 단기, 장기 Score> 세계 평균 단기, 장기 Score

4. 수주 기여도(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평가	기준
Positive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3%
Neutral	If 1%<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3%
Negative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1%

2)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1.

(분석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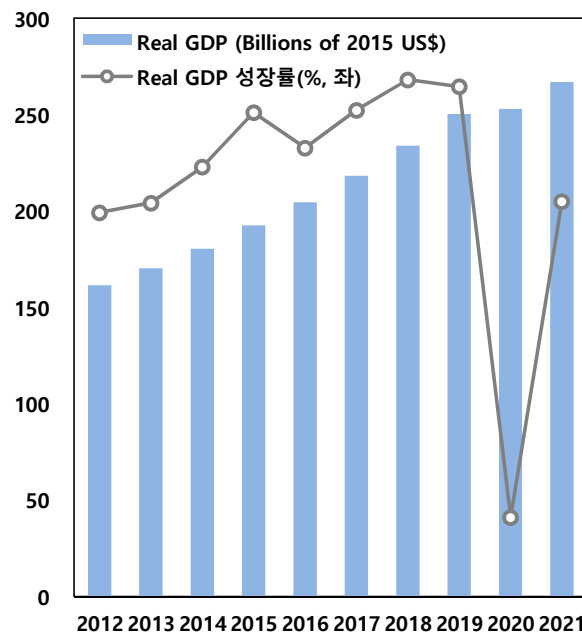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베트남	Positive (1.1, 5.5)	Positive (13%)	Positive (5.9, 5.1)	Positive (7)	348	12.9	8.5
필리핀	Positive (-8.3, 7.7)	Positive (13%)	Positive (5.0, 4.9)	Neutral (2.3)	516	9.6	7.6
싱가포르	Positive (-9.1, 2.8)	Neutral (7%)	Positive (2.1, 2.0)	Positive (5.2)	239	9.0	-3.5
인도	Positive (-6.9, 6.5)	Positive (17%)	Positive (6.4, 5.5)	Neutral (2.0)	4,525	8.7	-0.2
중국	Positive (1.5, 7.1)	Positive (24%)	Negative (7.9, 7.1)	Neutral (2.6)	37,348	7.5	4.2
인도네시아	Positive (-3.0, 3.3)	Positive (33%)	Neutral (6.9, 6.2)	Neutral (2.6)	3,495	6.1	2.7
태국	Positive (-8.0, 4.6)	Neutral (9%)	Positive (4.0, 4.0)	Neutral (1.3)	414	5.7	4.6
말레이시아	Positive (-8.6, 4.6)	Positive (12%)	Positive (2.9, 2.7)	Neutral (2.8)	409	4.5	-1.4
방글라데시	Negative (1.0, -2.7)	Positive (25%)	Neutral (8.5, 7.1)	Neutral (1.4)	630	0.1	5.2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경제) '20년 플러스 성장, '21년 5%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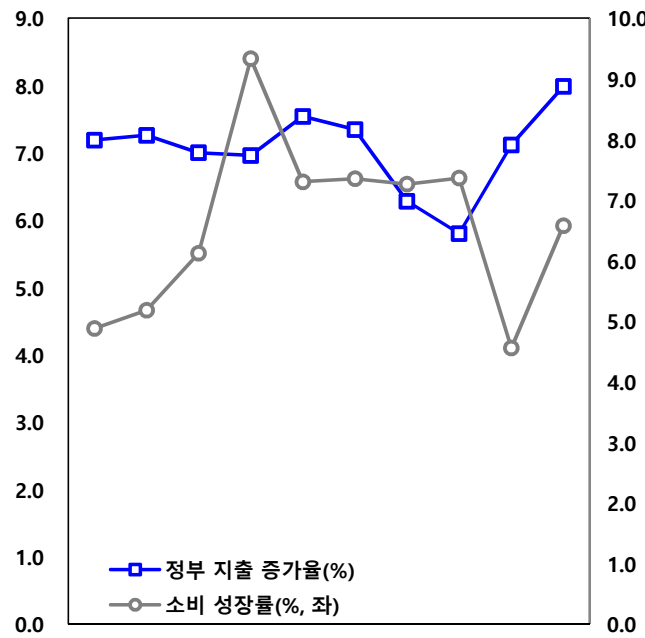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생산거점(Manufacturing base)으로 베트남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킴.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1.1%, 5.5%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7%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 지출은 '21년 8.0%, 소비 성장률도 6.6%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
- 고정 투자도 코로나19로 '20년 1.1%로 축소되었으나, '21년에는 8.3%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과 유사한 2.3%로 예상됨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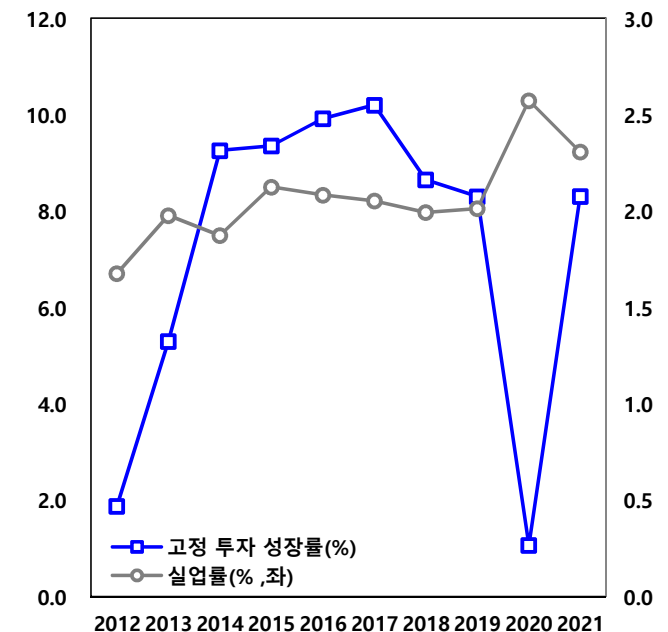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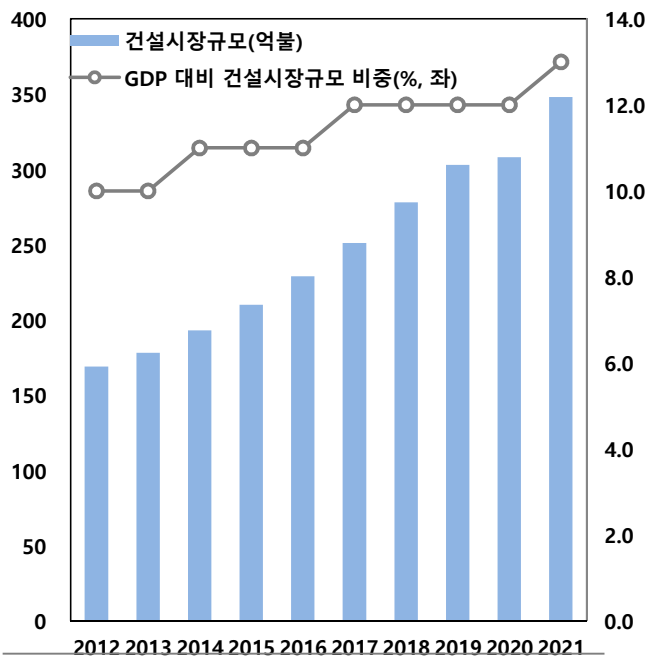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10→11→12→13%), '21년 348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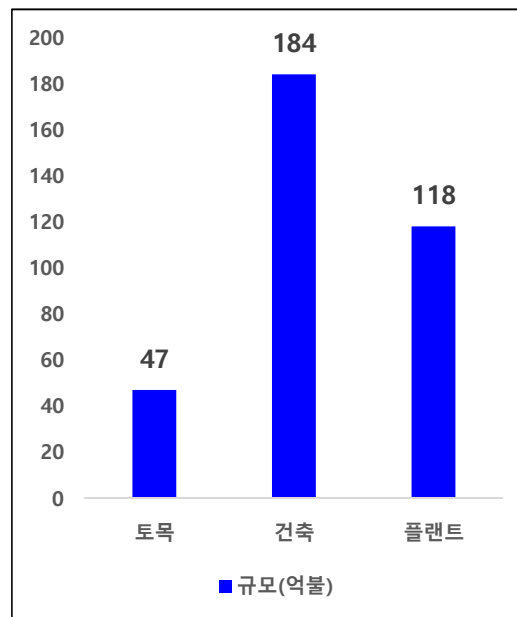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308억불 대비 12.9% 증가한 348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84억불(52.9%), 발전 등 플랜트 118억불(33.9%), 교통 등 토목이 47억불(13.5%)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9.3% 증가한 98백만명으로 1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시화율도 38%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즉 베트남의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향상되고 있음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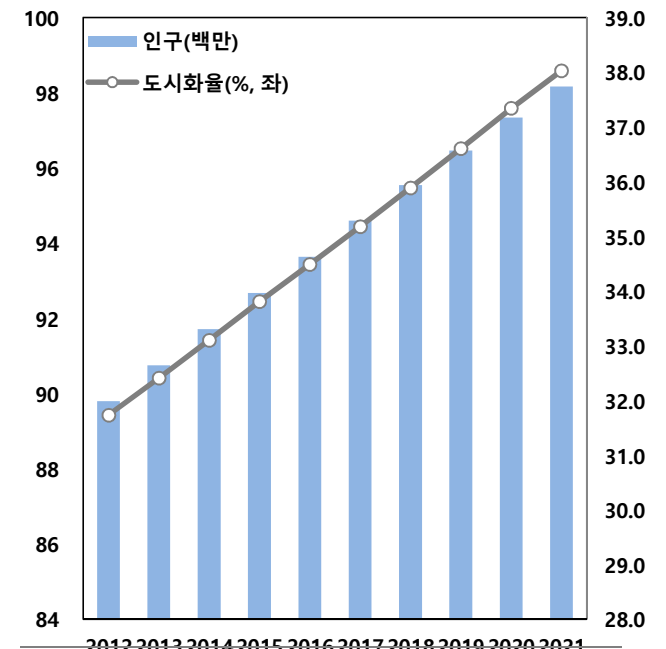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21	24	29	31	34	36	40	45	44	47
교통인프라	16	19	24	26	28	30	33	37	35	37
수처리	5	5	5	5	6	6	7	8	9	10
건축	90	98	101	108	119	131	145	158	162	184
주거용	67	72	78	86	94	103	115	126	129	146
오피스	7	9	7	6	7	7	8	9	9	11
상업시설	6	7	6	6	6	8	8	9	9	10
공공시설	10	10	10	10	12	13	14	14	15	17
플랜트	56	58	62	72	76	83	92	99	103	118
에너지	29	29	27	29	32	35	37	39	41	47
유틸리티	5	4	4	4	4	4	5	5	5	6
통신	1	1	1	1	1	1	1	1	1	1
정유시설	1	1	1	1	1	1	1	1	1	1
교통장비 등	2	2	2	2	2	2	2	2	2	3
화학시설	2	3	4	5	5	5	6	6	6	6
전기	2	3	4	6	7	9	10	13	15	18
음식료 공장	3	3	4	5	5	5	6	6	7	8
기타	11	12	15	19	19	21	24	26	25	28
총 시장규모	169	178	193	210	229	251	278	303	308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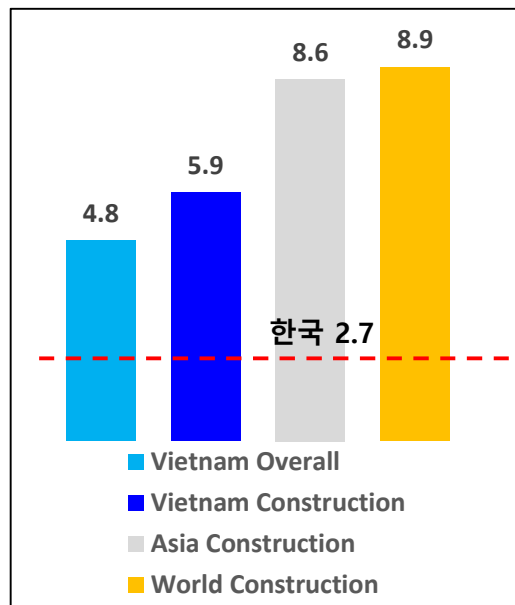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베트남. Risk assessment

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한 베트남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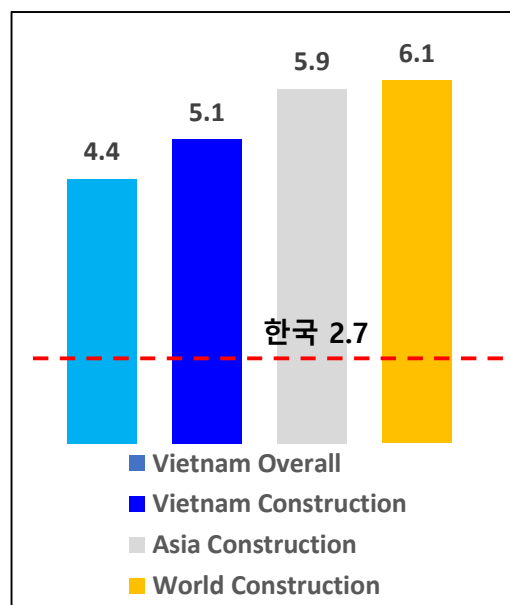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5.9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5.1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를 기록했던 해는 '15년, '17년으로 각각 GDP 대비 1.2%, 0.8% 수준이었으며, '18년부터 흑자가 지속(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7년 46.5%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21년에는 35.0%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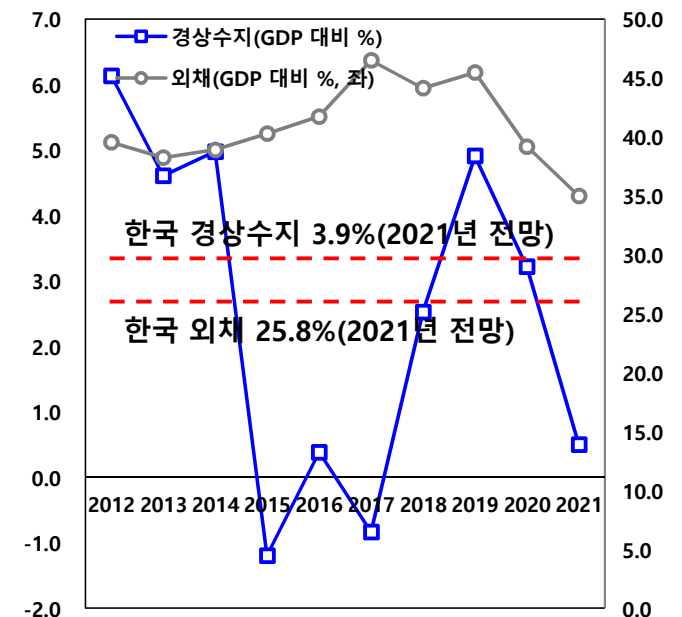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베트남.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7.0%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3,459	3,417	4,044	3,387	4,497	2,315	1,205	4,404	1,650	2,589	30,967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5.8%	5.3%	6.2%	5.1%	9.7%	8.2%	4.2%	13.7%	7.4%	8.5%	7.0%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베트남	Positive (1.1, 5.5)	Positive (13%)	Positive (5.9, 5.1)	Positive (7.0)	348	12.9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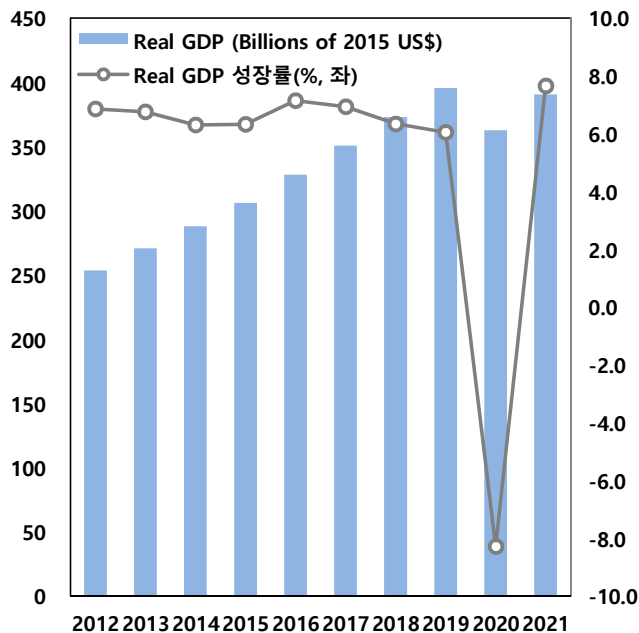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성장, 13%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과거 10년 평균 7.0% 수준의 수주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우리 기업은 고속철도, 공항, LNG 사업 발주에 주목할 필요 있음

(경제) '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1년 7% 후반대의 경제 성장 및 투자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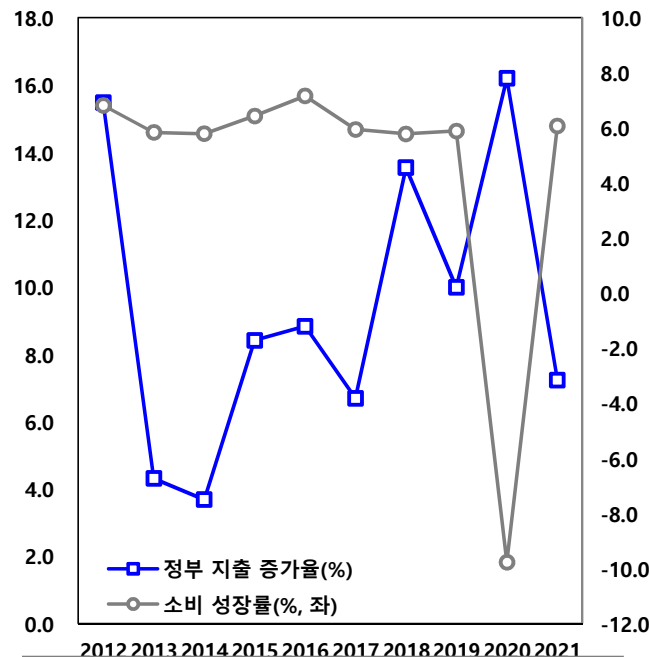
- 최근 10년 동안 매년 6~7%대 성장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8%대의 역성장 예상. 단, '21년 GDP 성장률은 7.7%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회복세로 진입할 전망
- 소비 성장률은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6.1%로 예상되나, 정부 지출은 '21년 7.2%로 하락 전망
- 고정 투자는 코로나19로 '20년 25.2% 역성장했으나, '21년에는 11.0%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유지된 5~7%대 실업률보다 다소 높은 7.7%로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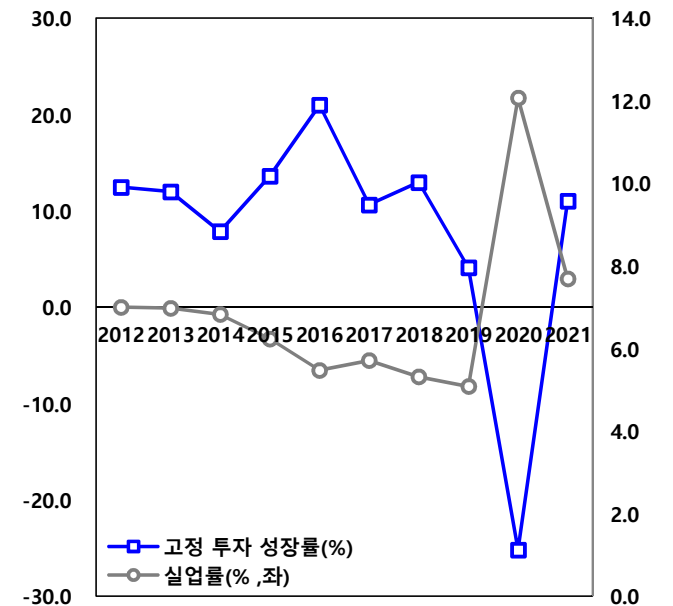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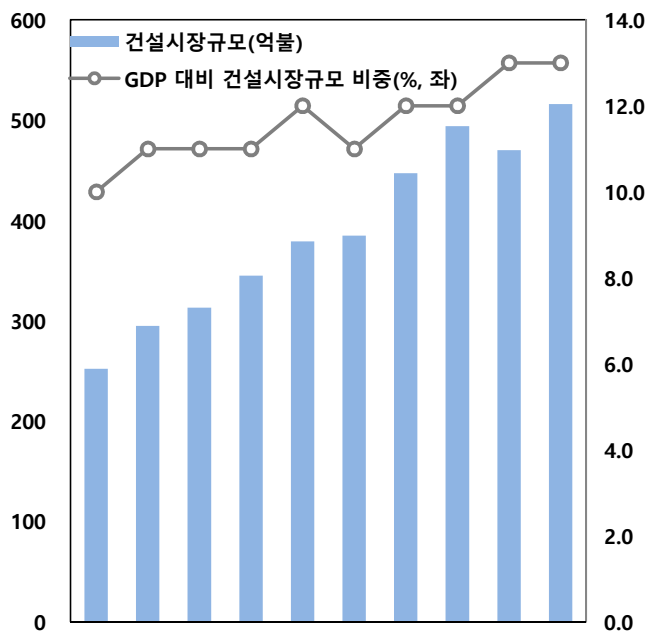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10→11→12→13%), '21년 516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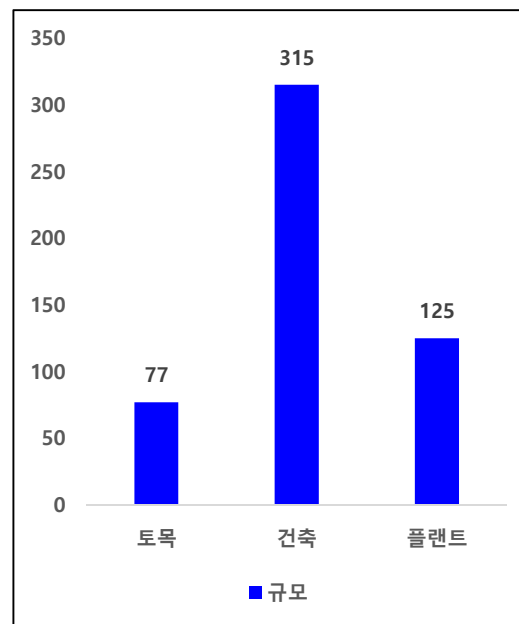
- 양호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470억불 대비 9.8% 증가한 516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15억불(61.0%), 발전 등 플랜트 125억불(24.2%), 교통 등 토목이 77억불(14.9%)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4.2% 증가한 111백만명이며, 도시화율도 48%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즉 필리핀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발전되고 있음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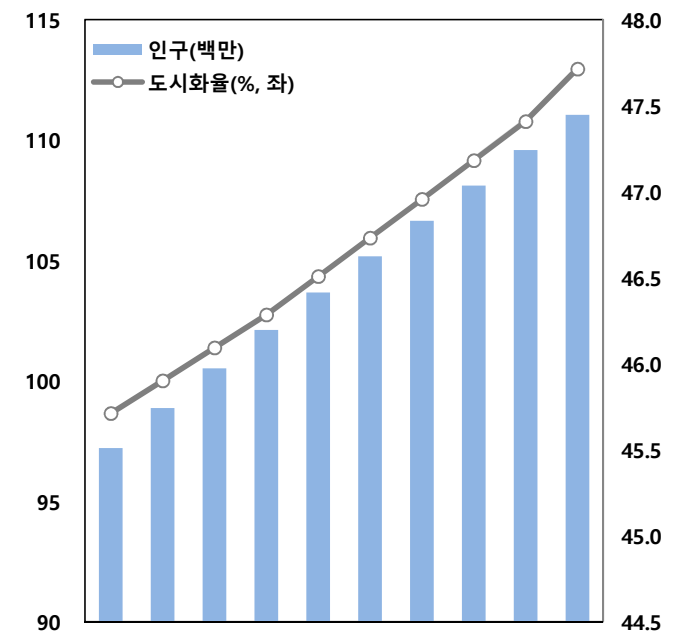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30	34	36	41	52	55	65	74	69	77
교통인프라	27	31	33	37	48	51	60	68	63	71
수처리	3	3	3	4	4	4	5	6	6	6
건축	160	189	200	219	236	237	271	298	293	315
주거용	142	168	178	195	210	210	240	263	260	278
오피스	10	12	13	14	15	16	18	20	20	22
상업시설	5	6	6	6	7	7	8	9	8	9
공공시설	3	3	3	4	4	4	5	6	5	6
플랜트	60	72	77	85	90	93	111	122	109	125
에너지	56	66	70	78	83	86	103	113	101	115
유틸리티	2	3	3	3	3	3	3	4	3	4
통신	1	1	1	1	1	1	1	1	1	2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0	0	0	0	0	0	1	1	1	1
화학시설	0	0	0	0	0	0	0	0	0	0
전기	1	1	1	1	1	1	1	1	1	1
음식료 공장	0	0	1	1	1	1	1	1	1	1
기타	0	1	1	1	1	1	1	1	1	1
총 시장규모	252	295	313	345	379	385	447	494	470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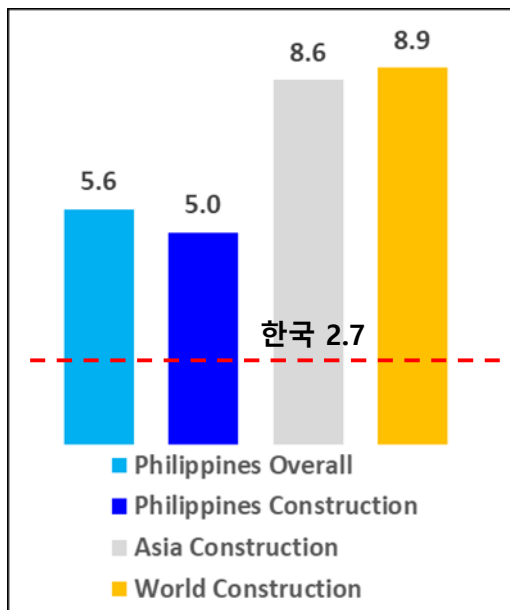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필리핀. Risk assessment

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을 보유한 필리핀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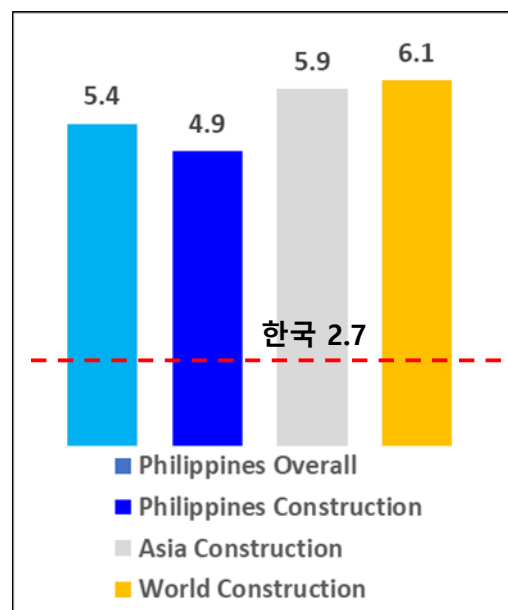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5.0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4.9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를 보면, '1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30.5%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며 '21년에는 24.1%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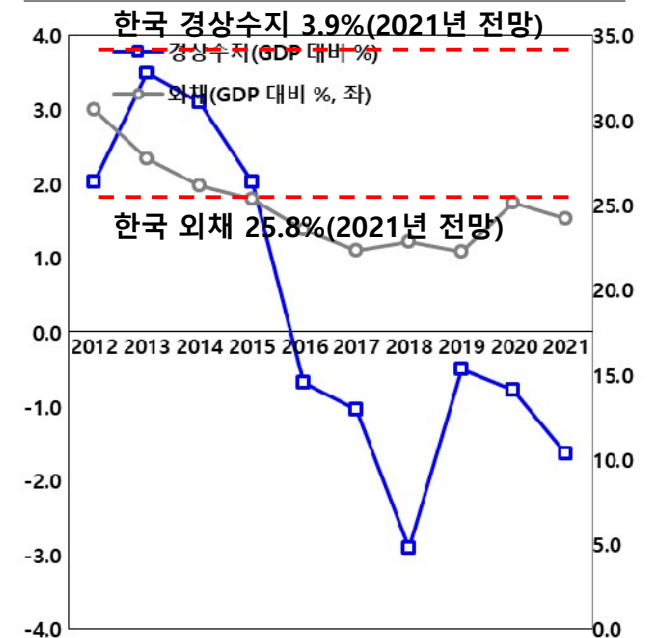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필리핀.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3%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2,580	721	480	1,604	919	1,584	357	772	175	1,128	10,320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4.4%	1.1%	0.7%	2.4%	2.0%	5.6%	1.2%	2.4%	0.8%	3.7%	2.3%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필리핀	Positive (-8.3, 7.7)	Positive (13%)	Positive (5.0, 4.9)	Neutral (2.3)	516	9.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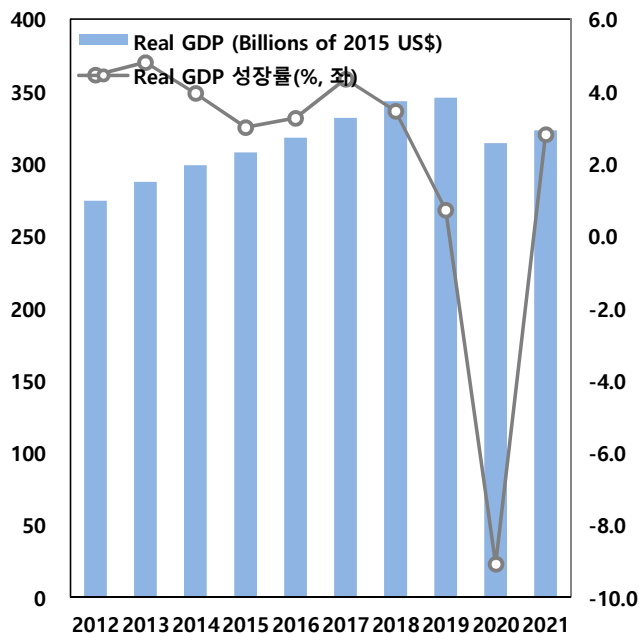
- 7%대의 경제성장, 13%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 단, 과거 10년 평균 2.3%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필리핀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

- 도로 등 교통인프라, 제철소, 정유 플랜트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

(경제) '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1년 2% 후반대의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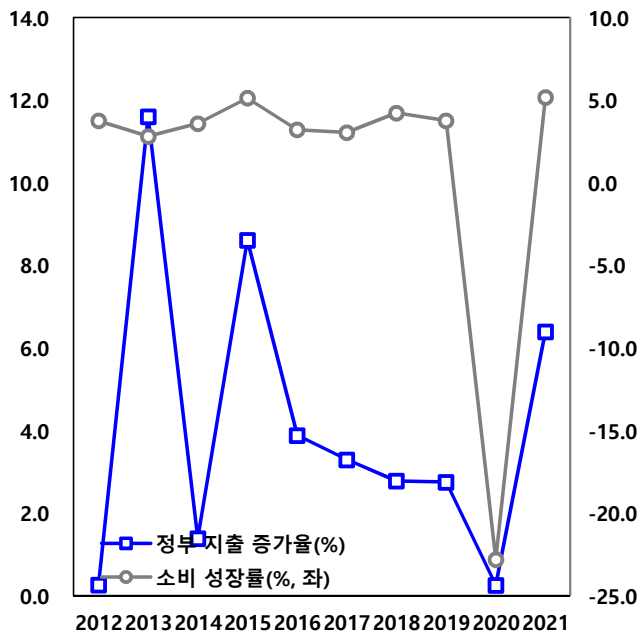
- 최근 10년 동안 매년 3~4%대 성장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9%대의 역성장 예상. 단, '21년 GDP 성장률은 2.8%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소비 성장률은 5.2%로 예상되며, 정부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다소 높은 6.4%로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1.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3.5%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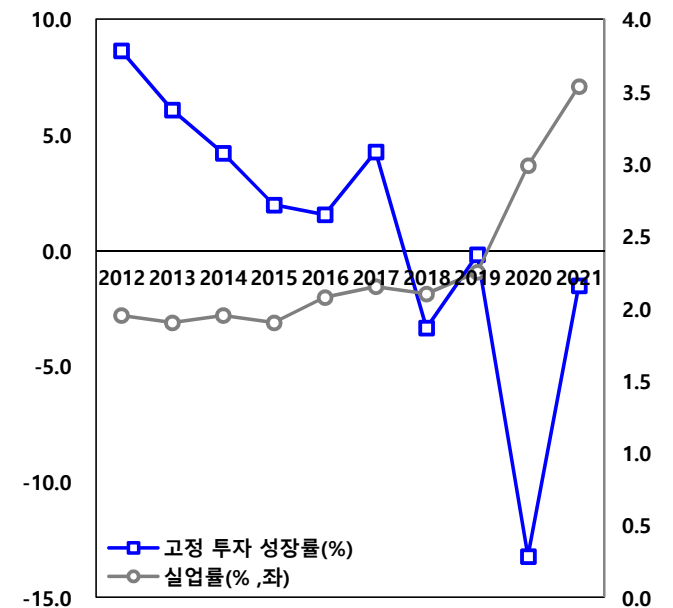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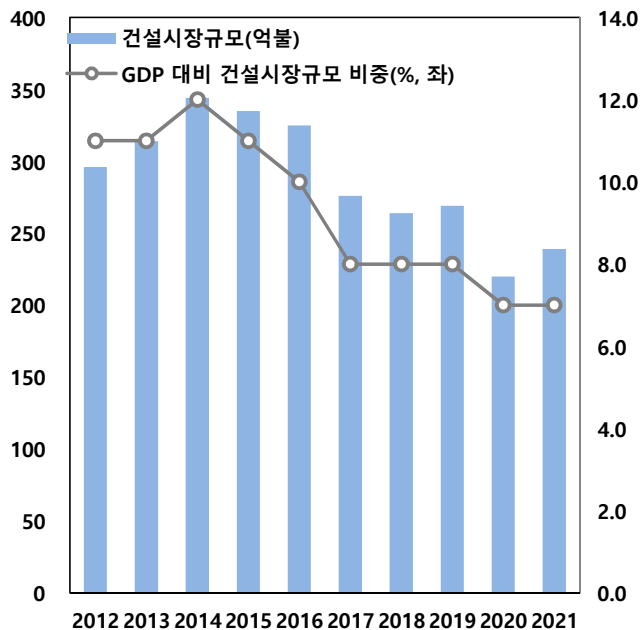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11→12→8→7%), '21년 239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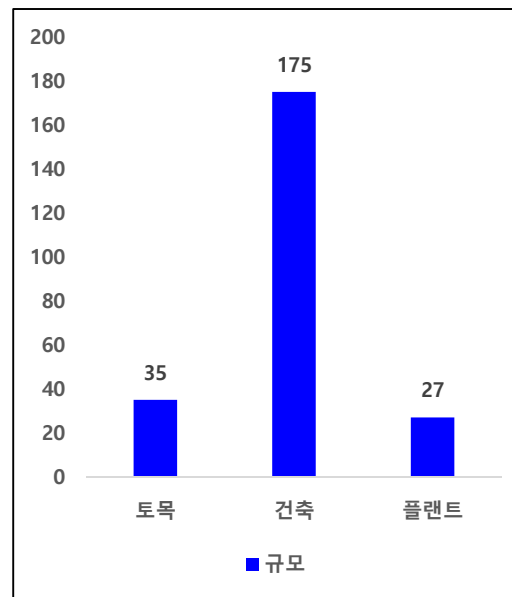
- 5만불대의 1인당 GDP 규모, 2~3%대의 경제 성장률,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 등을 볼 때, 싱가포르 건설시장규모가 지속 성장하기 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됨. '20년 220억불 대비 8.6% 증가한 239억불로 전망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75억불(73.2%), 발전 등 플랜트 27억불(11.3%), 교통 등 토목이 35억불(14.6%)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9.8% 증가한 5.9백만명이며, 도시화율은 100%로 향후 건설시장 성장성은 다소 부족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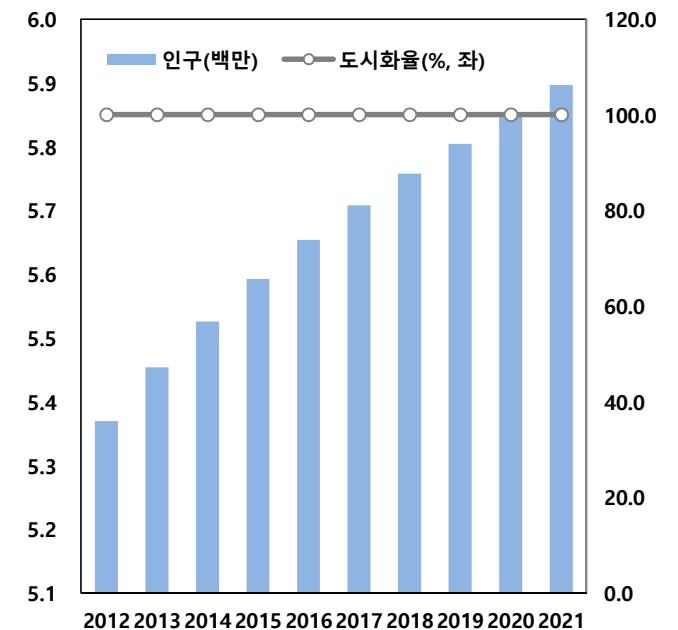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34	34	42	42	44	39	39	42	32	35
교통인프라	29	29	36	36	37	34	34	36	27	30
수처리	5	5	6	6	7	5	5	6	5	5
건축	223	244	264	258	244	201	188	189	159	175
주거용	144	161	173	169	155	122	113	111	93	101
오피스	52	55	61	60	59	53	51	54	45	51
상업시설	14	14	15	14	15	13	12	12	10	11
공공시설	13	14	15	15	15	13	12	12	11	12
플랜트	38	36	39	37	38	32	34	36	27	27
에너지	9	8	10	10	11	9	9	10	8	9
유틸리티	2	2	2	2	2	1	1	2	1	1
통신	3	3	3	3	3	2	2	2	2	2
정유시설	1	1	1	1	1	0	0	0	0	0
교통장비 등	1	1	1	0	0	0	0	0	0	0
화학시설	6	6	7	7	9	7	7	7	5	5
전기	14	13	13	12	10	12	14	14	10	9
음식료 공장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2	2	2	2	1	1	1	1	1
총 시장규모	296	314	344	335	325	276	264	269	220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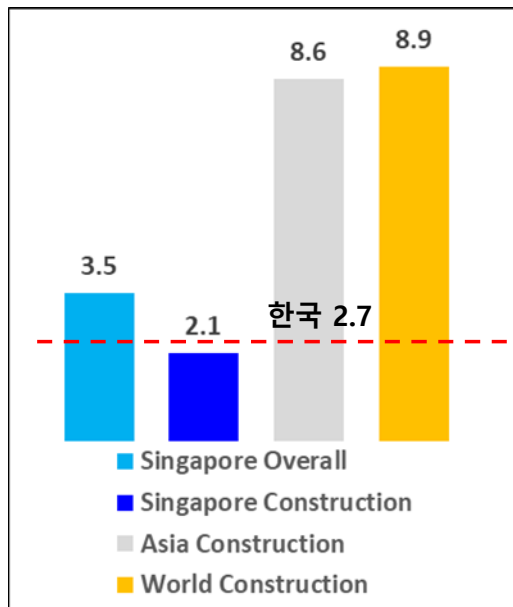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싱가포르. Risk assessment

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필리핀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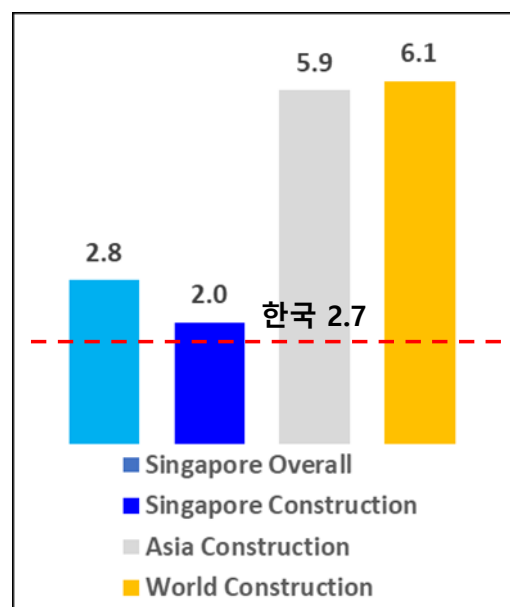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2.1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상당히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2.0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상당히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1년에는 GDP의 19.2%임(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400% 이상이나,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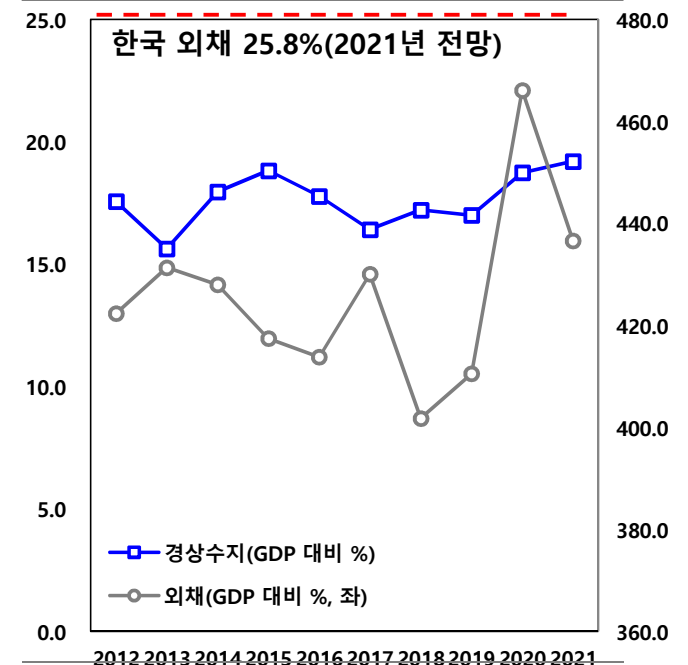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싱가포르.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5.2%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3,290	3,345	3,516	1,770	2,578	2,787	944	2,584	1,288	1,034	23,136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5.6%	5.2%	5.4%	2.7%	5.6%	9.9%	3.3%	8.0%	5.8%	3.4%	5.2%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싱가포르	Positive (-9.1, 2.8)	Neutral (7.0%)	Positive (2.1, 2.0)	Positive (5.2)	239	9.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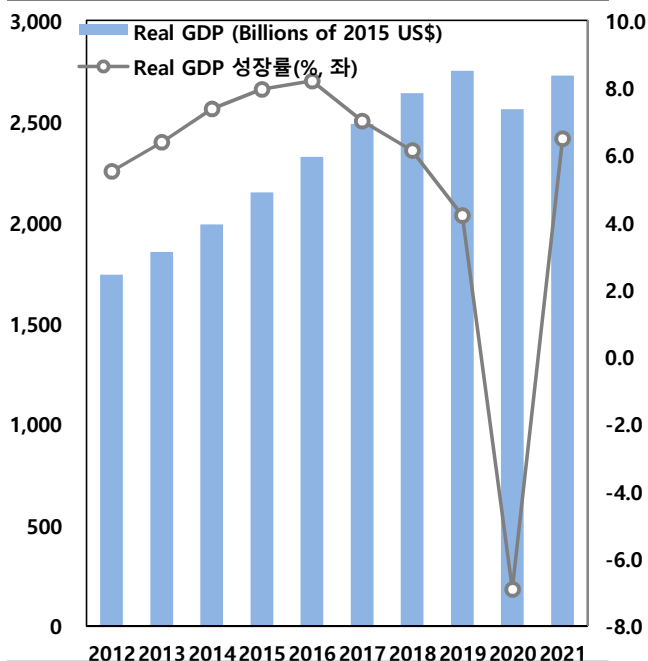
- 2%대 후반의 경제성장,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과거 10년 평균 5.2%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 단, 7%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으로 본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아쉬우나,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메트로, 교량, LNG 플랜트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

(경제) '20년 역성장, '21년 6%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경제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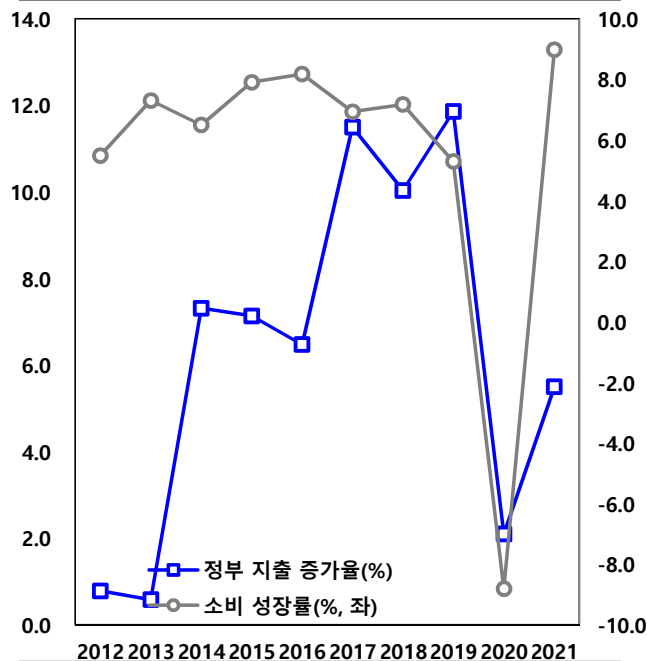
-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6.9%, 6.5%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며, 백신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그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5.5%, 소비 성장률도 9.0%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3.9% 역성장했으나, '21년에는 4.9%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단. 실업률은 11%대로 높아질 전망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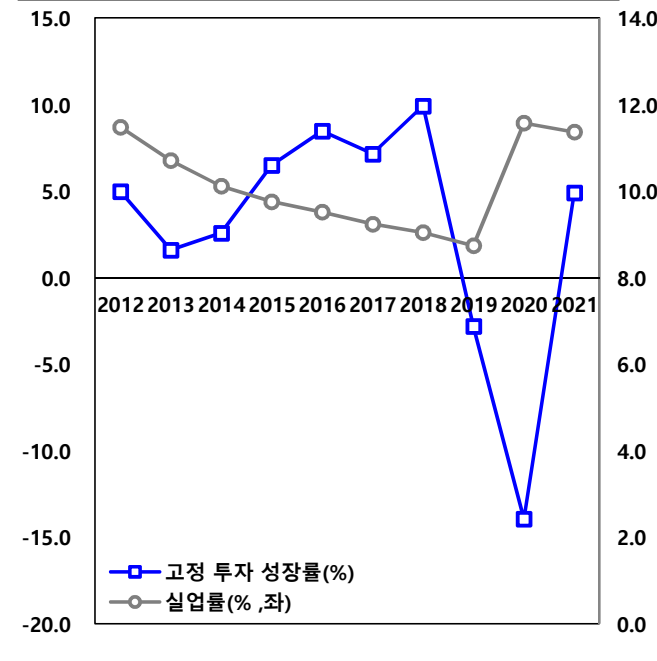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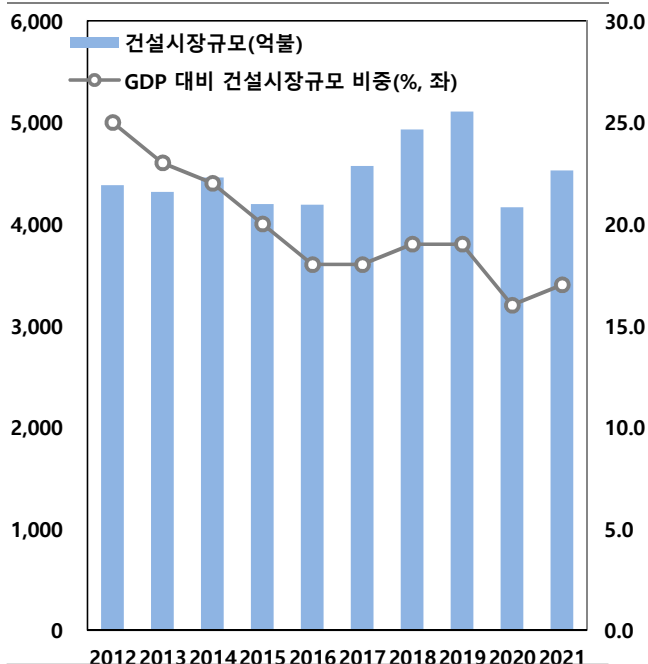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25→18→16→17%), '21년 4,525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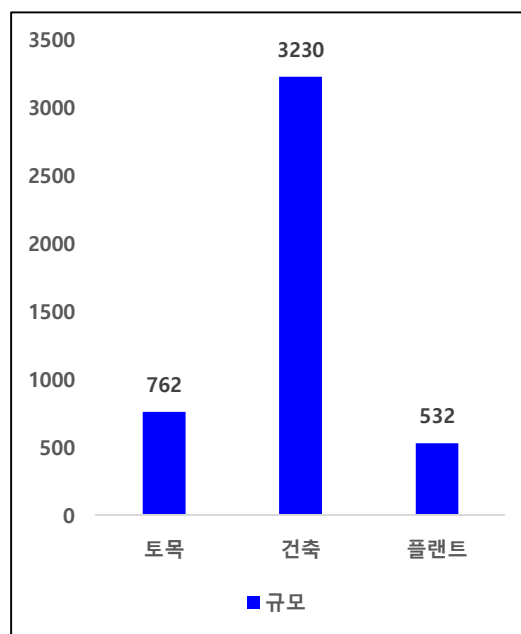
- 14억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이 다소 감소 하고 있으나, 타국가 대비 높은 수준임. '20년 4,164억불 대비 8.7% 증가한 4,525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율 상승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230억불(71.4%), 발전 등 플랜트 532억불(11.8%), 교통 등 토목이 762억불(16.8%)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0.1% 증가한 13억 93백만명으로 14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시화율도 35%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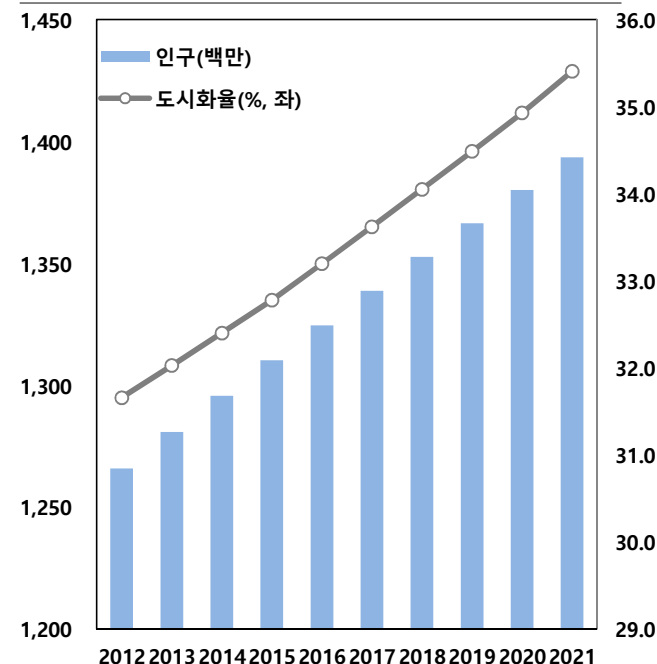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436	424	487	495	547	648	741	819	669	762
교통인프라	248	223	249	253	317	439	508	574	453	516
수처리	188	201	238	242	230	209	233	245	216	246
건축	3,424	3,267	3,402	3,148	3,130	3,400	3,617	3,695	3,008	3,230
주거용	2,564	2,380	2,439	2,262	2,232	2,417	2,556	2,605	2,088	2,248
오피스	485	560	583	497	487	528	572	585	478	512
상업시설	191	121	176	166	173	202	195	197	164	167
공공시설	184	206	204	223	238	253	294	308	278	303
플랜트	523	623	566	551	512	521	572	589	486	532
에너지	274	348	329	305	287	291	319	318	251	287
유틸리티	81	86	80	88	73	64	72	77	68	70
통신	10	21	9	19	16	27	27	30	28	28
정유시설	8	22	24	25	28	29	33	32	23	26
교통장비 등	25	18	14	13	12	12	14	14	11	12
화학시설	27	26	23	27	27	29	32	35	33	34
전기	5	5	4	4	4	4	4	4	4	4
음식료 공장	14	14	15	13	11	11	13	15	15	15
기타	79	83	68	57	54	54	58	64	53	56
총 시장규모	4,382	4,314	4,457	4,194	4,188	4,569	4,930	5,106	4,164	4,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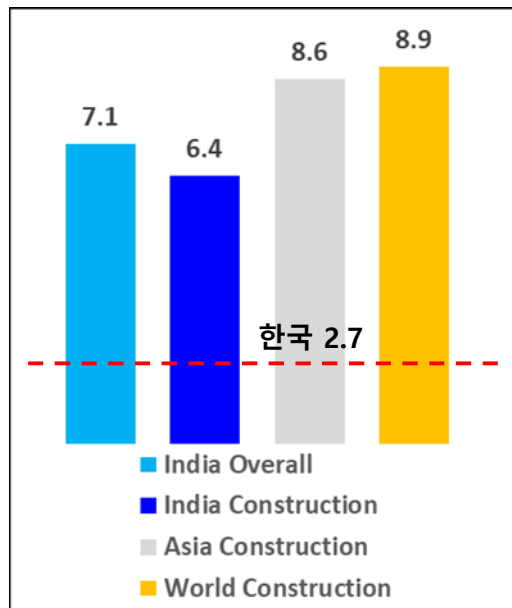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인도. Risk assessment

단기보다는 중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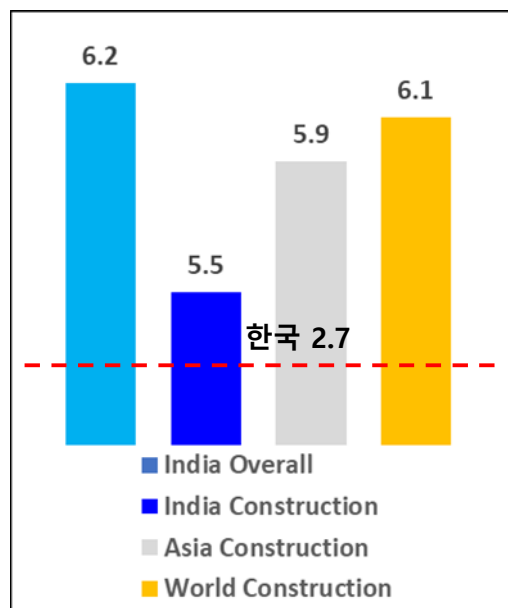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6.4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5.5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대비 1~2% 수준(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지속 상승 추세로 '21년에는 28.2%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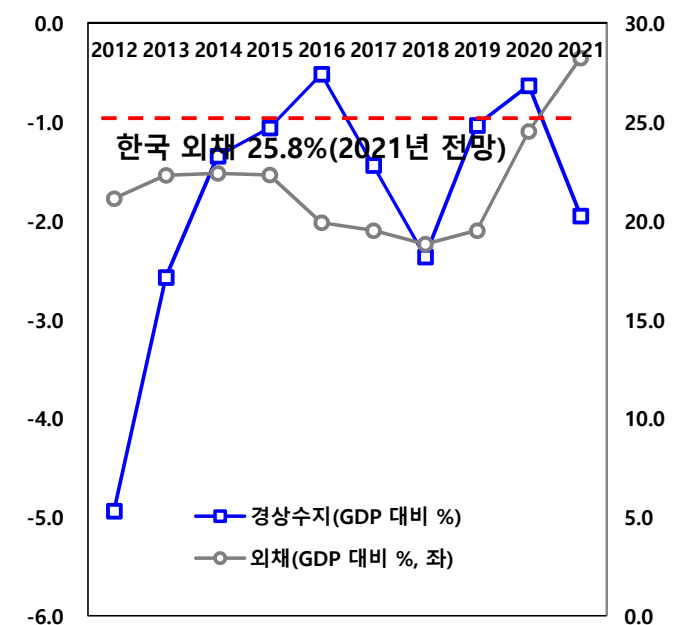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도.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0%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977	759	1,294	888	70	764	2,916	895	366	70	8,999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7%	1.2%	2.0%	1.3%	0.2%	2.7%	10.1%	2.8%	1.6%	0.2%	2.0%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인도	Positive (-6.9, 6.5)	Positive (17%)	Positive (6.4, 5.5)	Neutral (2.0)	4,525	8.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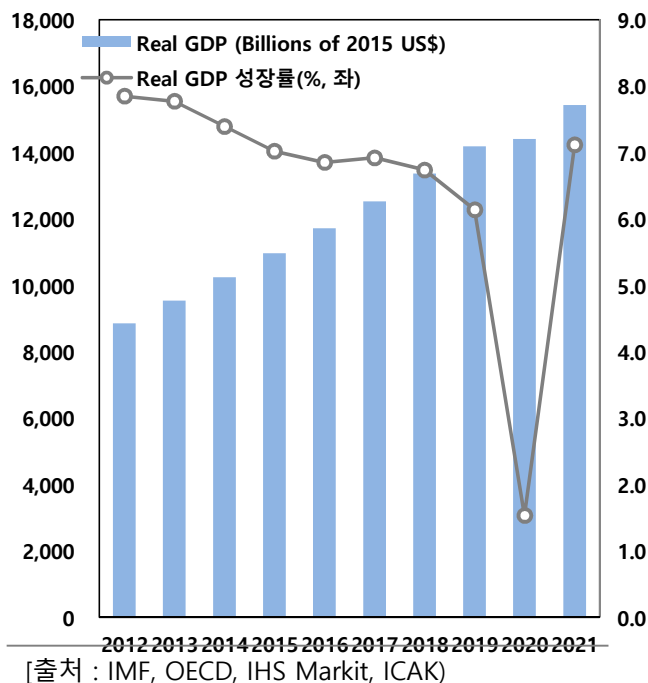
- 6%대 중반의 경제성장, 17%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 단, 과거 10년 평균 2.3%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 하지만 인도의 큰 시장규모 및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고속철도,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제철소 사업 발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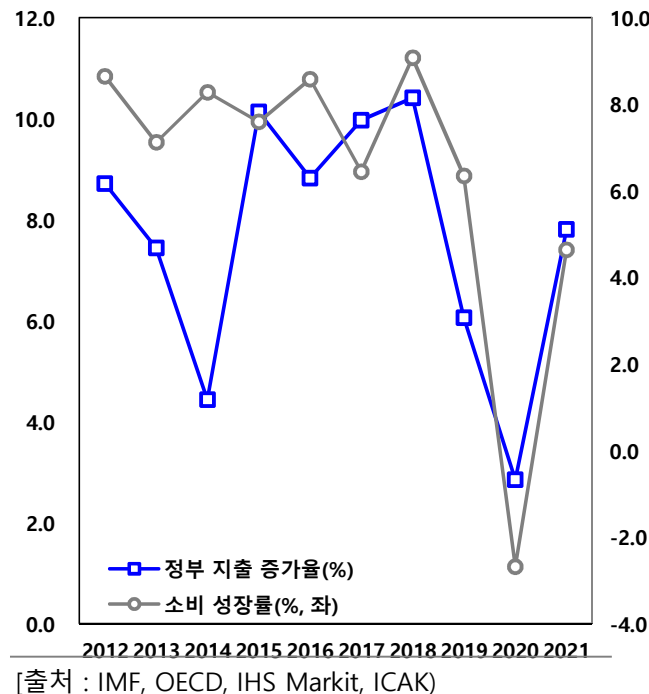
(경제) '20년 플러스 성장, '21년 7%대의 경제 성장 및 정부 지출, 고정 투자 증가세

- 최근 10년 동안 매년 6~8%대 성장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1.5% 성장 예상. 단, '21년 GDP 성장률은 7.1%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소비 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7.8%로 증가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7.5%로 성장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나, 3~4%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4.2%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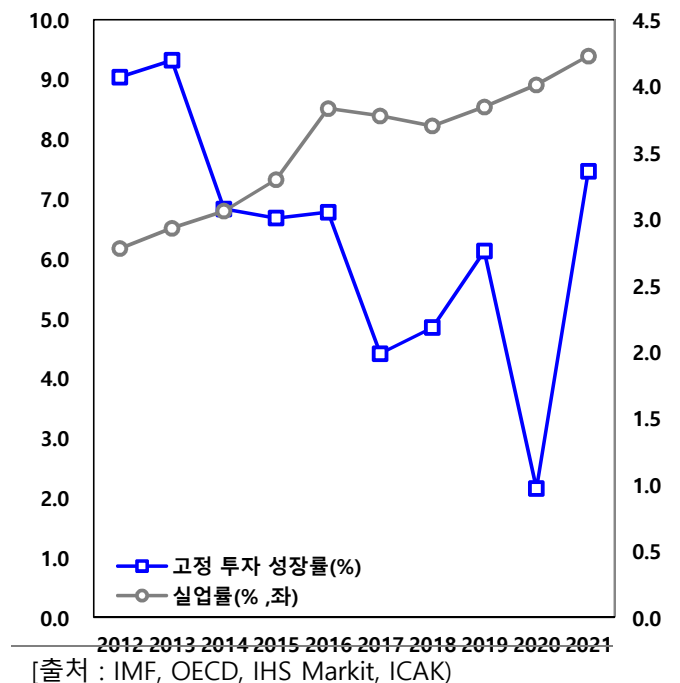
생산 지표(Real GDP 등)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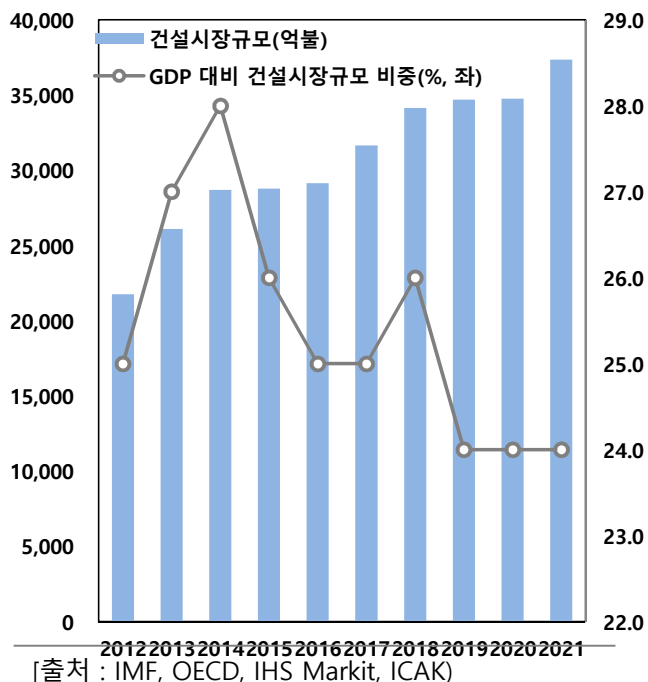


중국. Pipeline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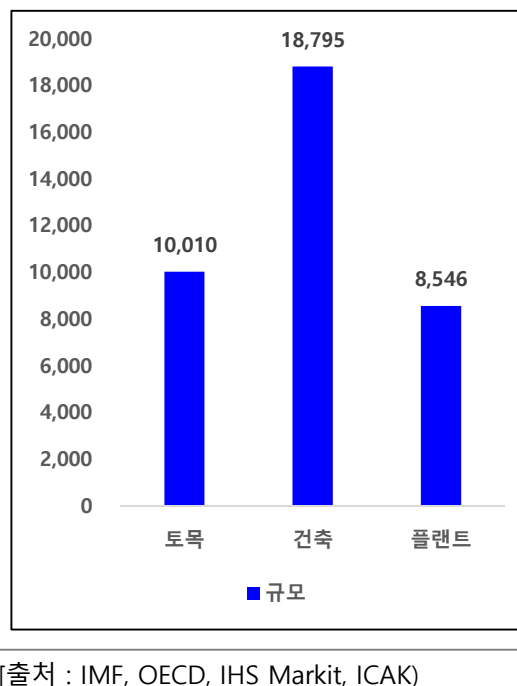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은 24%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21년 '20년 대비 7.5% 증가한 3조 7,348억불 예상

- 14억명 이상의 인구 및 7%대 경제 성장 등으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3조 4,746억 불 대비 7.5% 증가한 3조 7,348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조 8,795억불(50.3%), 발전 등 플랜트 8,546억 불(22.9%), 교통 등 토목이 1조 10억불(26.8%)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4.3% 증가한 14억 44백만명으로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62.4% 수준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됨. 즉 중국의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향상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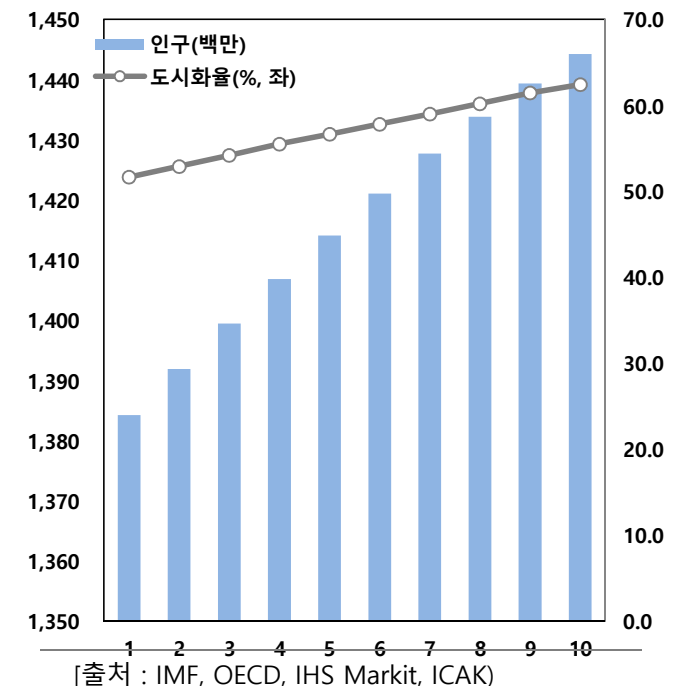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인구수 및 도시화율(Construction Drivers)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4,287	5,047	5,792	6,244	6,866	8,179	9,092	9,349	9,465	10,010
교통인프라	3,406	3,938	4,501	4,776	5,110	6,071	6,612	6,633	6,741	7,188
수처리	881	1,109	1,291	1,468	1,756	2,108	2,480	2,716	2,724	2,822
건축	12,215	14,563	15,820	15,391	15,245	16,195	17,397	17,676	17,625	18,795
주거용	8,307	9,553	10,283	9,735	9,547	10,079	10,888	11,048	11,083	11,802
오피스	2,529	3,226	3,465	3,386	3,334	3,465	3,829	4,042	3,998	4,262
상업시설	359	482	549	586	522	495	426	370	329	345
공공시설	1,020	1,302	1,523	1,684	1,842	2,156	2,254	2,216	2,215	2,386
플랜트	5,249	6,472	7,068	7,127	7,024	7,279	7,646	7,667	7,656	8,546
에너지	1,918	2,251	2,505	2,596	2,665	2,770	2,743	2,812	2,817	3,399
유틸리티	338	421	469	502	504	496	469	470	489	592
통신	38	41	49	47	55	52	54	55	57	60
정유시설	56	75	78	56	55	55	61	66	58	63
교통장비 등	247	310	324	328	308	337	348	331	322	329
화학시설	480	613	653	633	591	577	628	615	592	621
전기	377	465	496	506	524	597	689	715	721	743
음식료 공장	305	411	457	450	442	445	455	430	456	489
기타	1,490	1,885	2,037	2,009	1,880	1,950	2,199	2,173	2,144	2,250
총 시장규모	21,751	26,082	28,680	28,763	29,135	31,654	34,136	34,691	34,746	37,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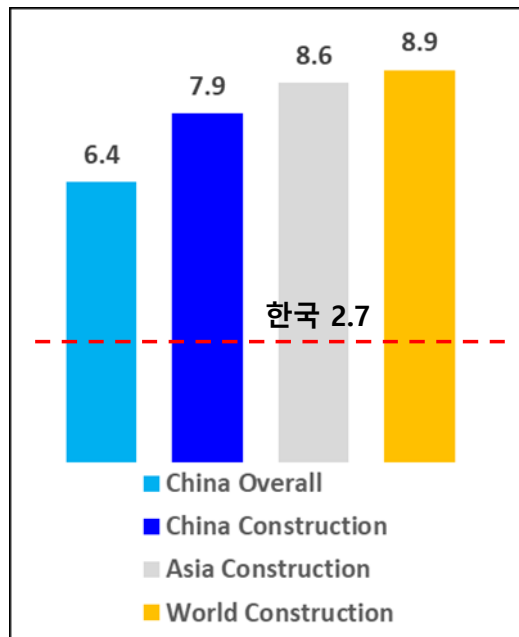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중국. Risk assessment

최고의 성장성을 지닌 시장이지만 단기, 중기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은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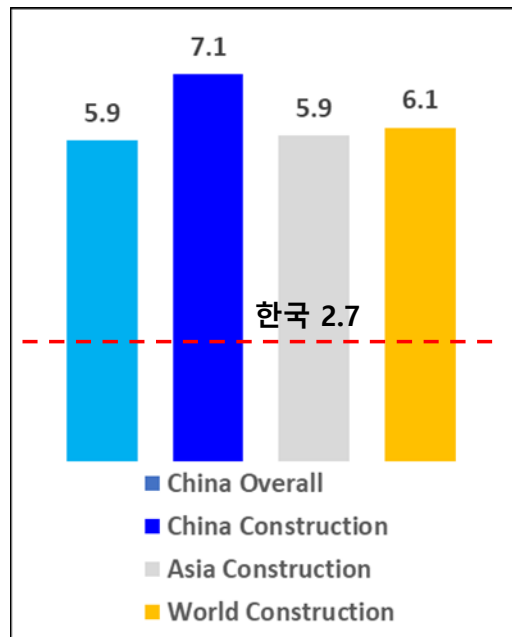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7.9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상당히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7.1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상당히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1년에는 GDP의 0.2%임(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0%대임(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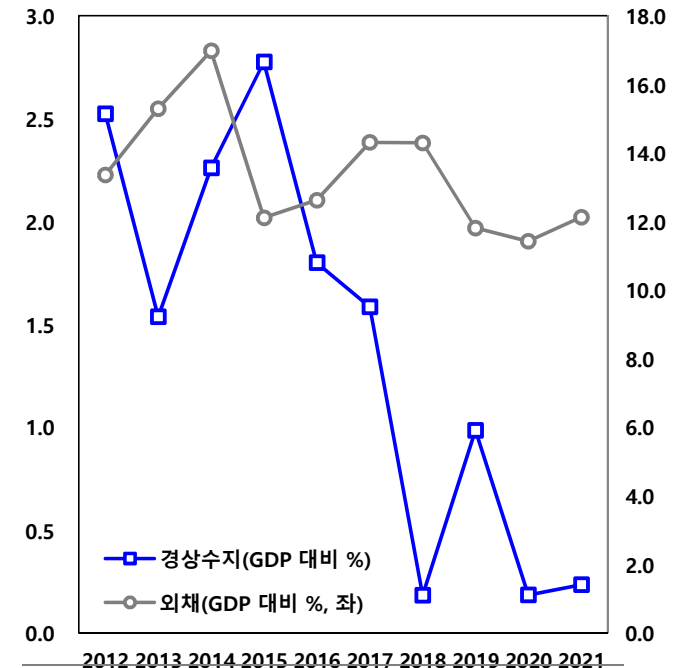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국.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6%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1,058	1,563	537	793	1,512	641	245	1,313	2,365	1,301	11,328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8%	2.4%	0.8%	1.2%	3.3%	2.3%	0.8%	4.1%	10.6%	4.3%	2.6%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중국	Positive (1.5, 7.1)	Positive (24%)	Negative (7.9, 7.1)	Neutral (2.6)	37,348	7.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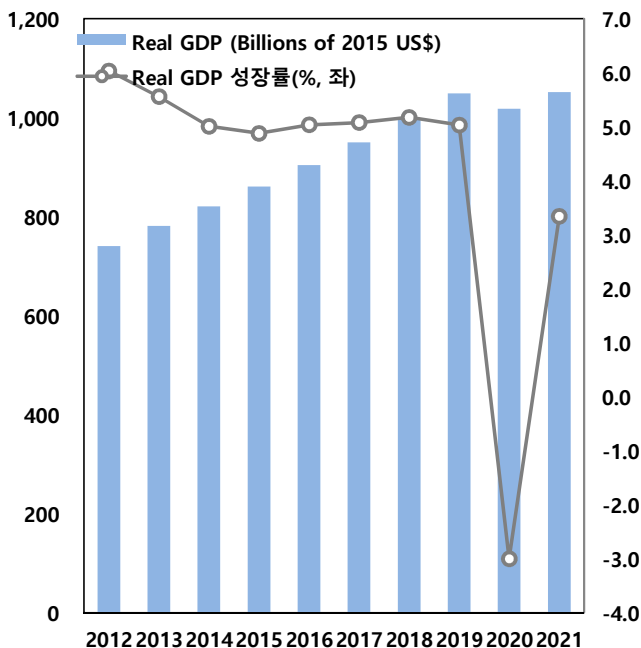
- 7%대 경제성장, 24%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을 종합해 보면, 성장성과 그 규모에서는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됨. 단,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및 과거 10년 평균 2.6%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현지 기업의 경쟁력 및 법제도 차이가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종합적으로 다소 중립적으로 전망됨

- **전기차 제조공장 등 그룹사 발주 공사 기회에 주목**

(경제) '20년 역성장, '21년 3% 초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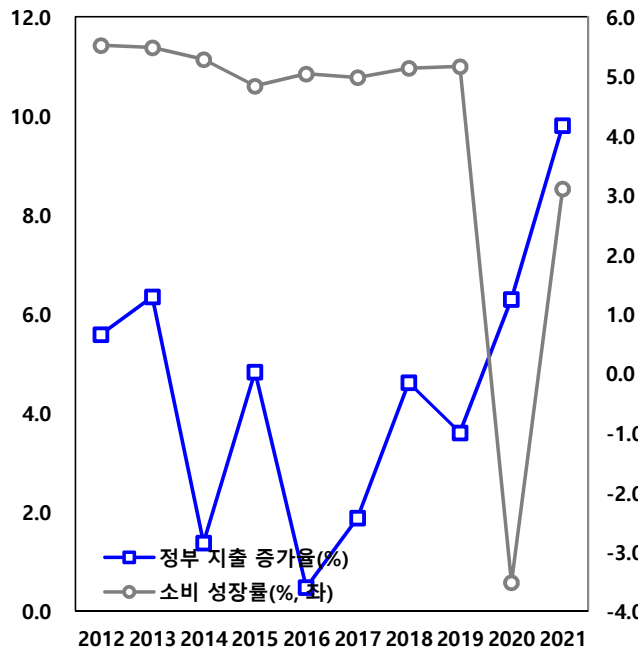
-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3.0%, 3.3%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5%대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음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9.8%, 소비 성장률도 3.1%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도 코로나19로 '20년 -5.4%로 감소되었으나, '21년에는 5.4%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보다 다소 높지만 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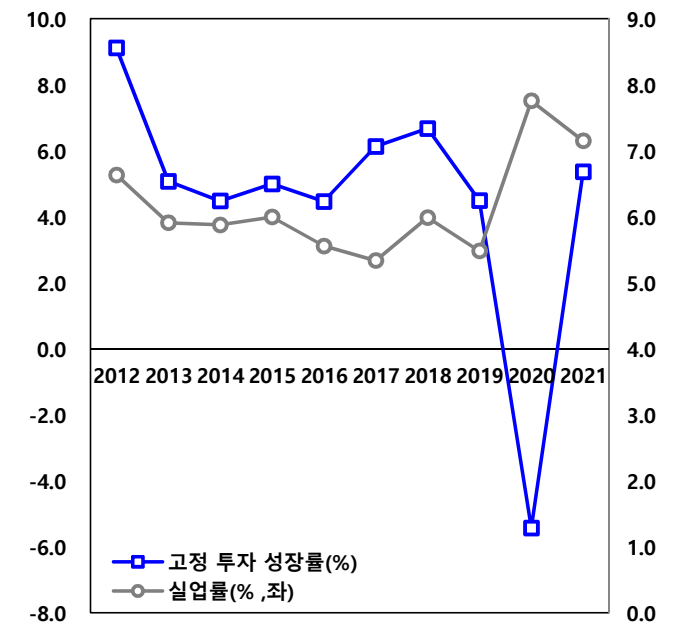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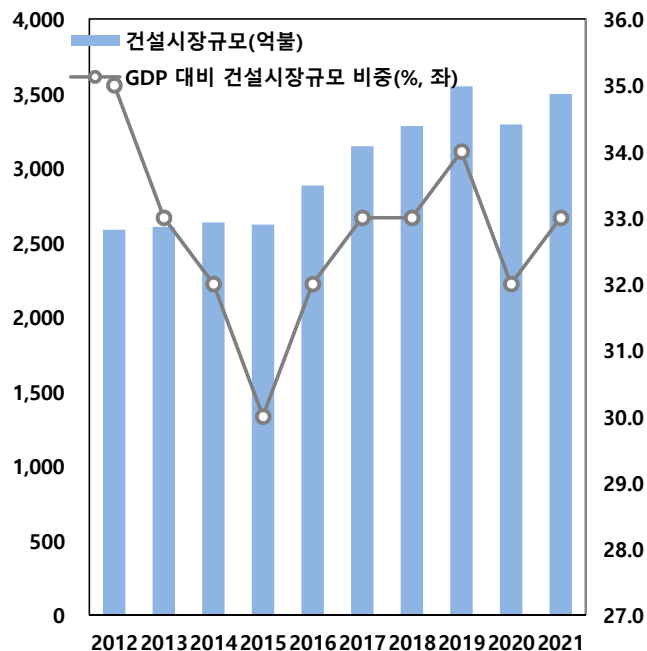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도네시아. Pipeline Size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이 30%대로 매우 높음. '21년 3,495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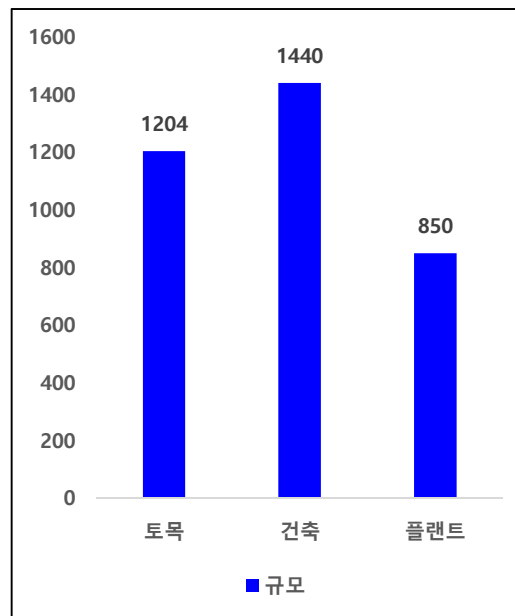
- 경제 규모 및 성장률 모두 양호하며, 인구 증가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3,292억불 대비 6.2% 증가한 3,495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상업용 시설 등 건축이 1,440억불(34.4%), 발전 등 플랜트 850억불(24.3%), 교통 등 토목이 1,204억불(34.4%)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1.2% 증가한 2억 76백만명이며, 도시화율도 57%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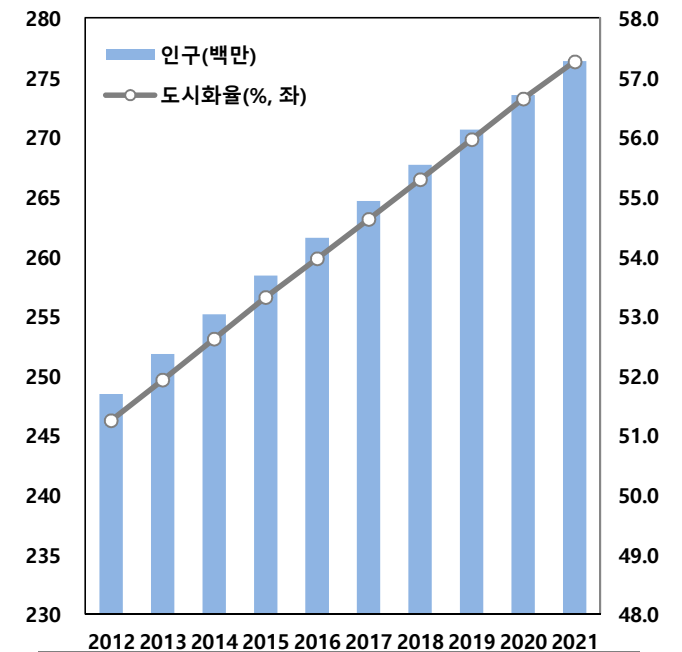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도네시아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610	677	721	780	948	1,072	1,100	1,239	1,157	1,204
교통인프라	583	652	695	757	921	1,043	1,071	1,206	1,122	1,168
수처리	27	25	26	23	27	29	29	33	35	36
건축	1,061	1,078	1,105	1,099	1,200	1,299	1,345	1,456	1,356	1,440
주거용	329	328	327	317	343	366	374	399	380	400
오피스	176	183	191	198	223	248	257	276	265	281
상업시설	370	380	391	382	414	449	467	502	432	449
공공시설	186	187	196	202	220	236	247	279	279	310
플랜트	914	851	807	741	733	775	836	853	779	850
에너지	651	597	562	500	470	483	530	539	479	534
유틸리티	18	18	18	19	21	24	25	25	24	27
통신	91	86	86	82	93	107	115	119	115	116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13	13	8	8	8	9	9	9	7	8
화학시설	24	23	22	17	18	19	19	19	17	19
전기	11	11	7	8	8	8	7	7	6	7
음식료 공장	44	43	45	45	49	55	58	61	62	67
기타	62	60	59	62	66	70	73	74	69	72
총 시장규모	2,585	2,605	2,634	2,620	2,882	3,146	3,281	3,547	3,292	3,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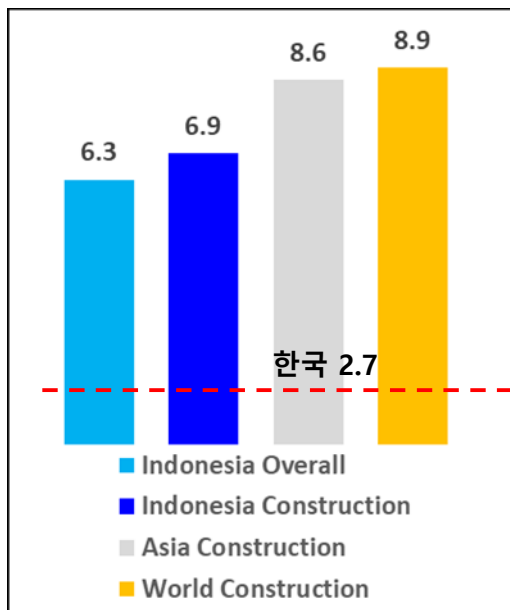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인도네시아. Risk assessment

시장 규모는 크지만, 중기 측면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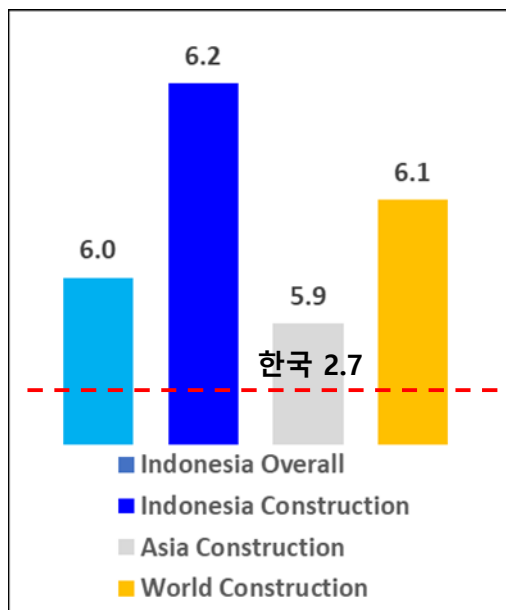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6.9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6.2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를 기록중으로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3% 수준으로 전망(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이후 증가세로 '21년에는 41.8%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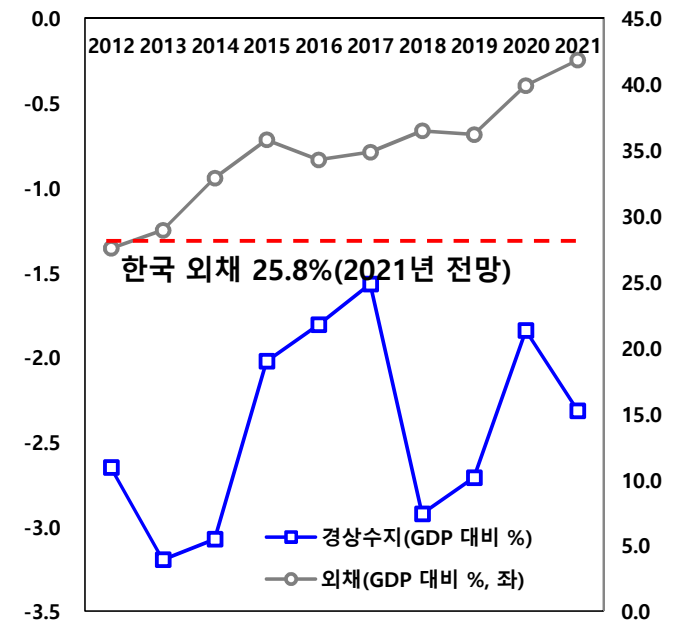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도네시아.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6%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224	1,710	759	999	1,504	132	947	877	3,744	681	11,577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0.4%	2.6%	1.2%	1.5%	3.3%	0.5%	3.3%	2.7%	16.8%	2.2%	2.6%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인도네시아	Positive (-3.0, 3.3)	Positive (33%)	Neutral (6.9, 6.2)	Neutral (2.6)	3,495	6.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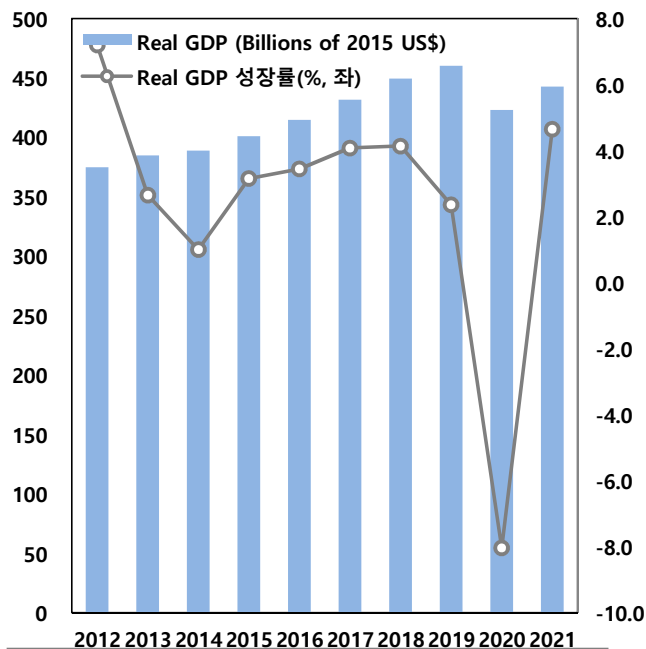
➤ 3%대 경제성장, 33%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을 종합해 보면, 성장성과 그 규모에서는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됨. 물론,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및 과거 10년 평균 2.6% 수준의 수주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항목의 긍정적 측면을 소폭 상쇄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수도이전 Mega 프로젝트 추진을 놓고 볼 때, 우리 기업에게 풍부한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장으로 기대됨

(경제) '20년 8% 역성장, '21년 4%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상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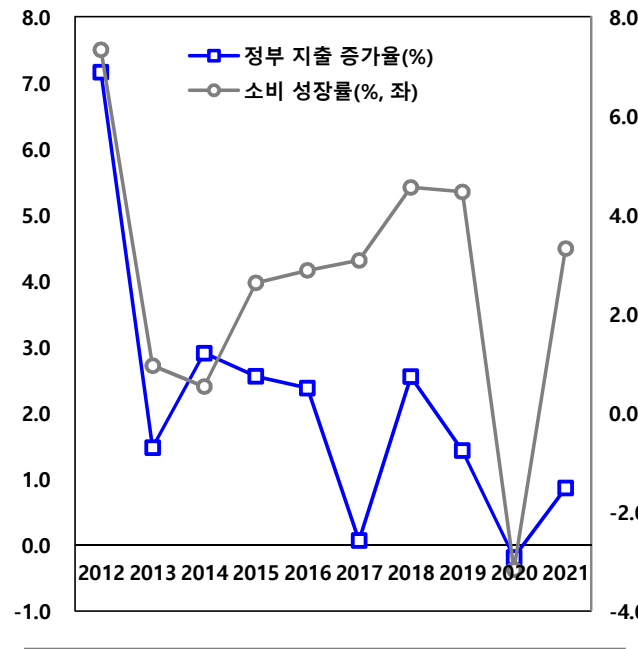
-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8.0%, 4.6% 전망. 코로나 확산 이전인 2~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정부 지출 증가율은 '21년 0.9%, 소비 성장률도 3.3%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회복할 전망
-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20년 -11.2%로 축소되었으나, '21년에는 1.8%로 과거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실업률은 1.0%로 예상됨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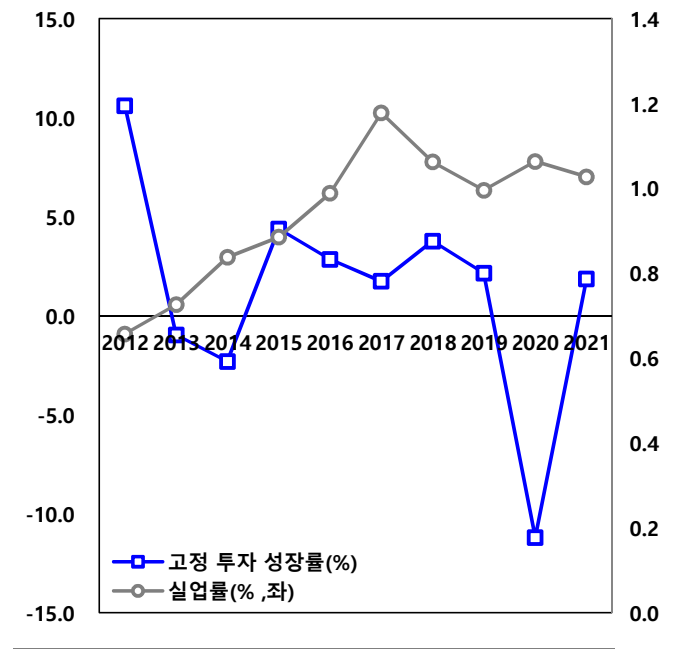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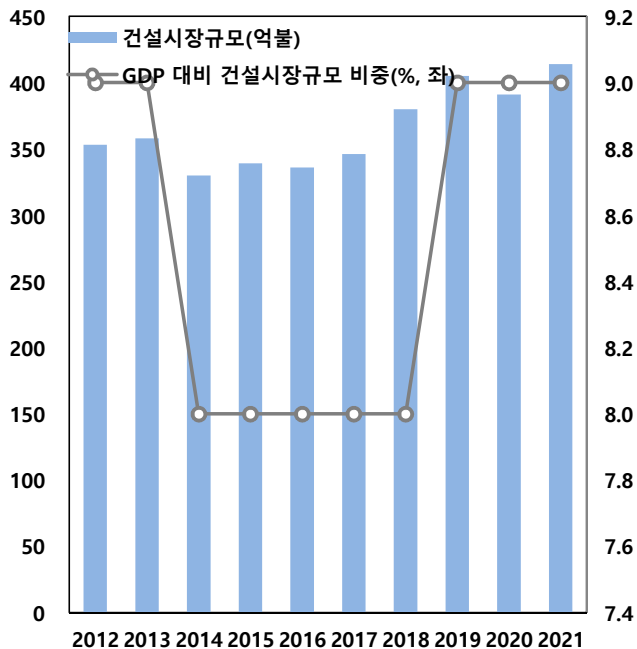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8~9%대 유지, '21년 414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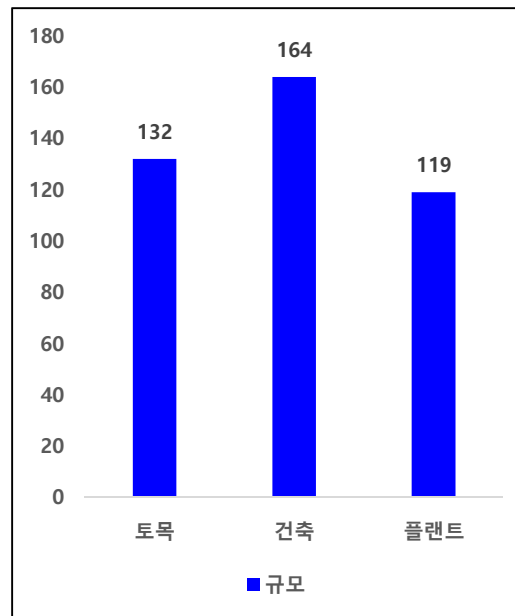
-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지속으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391억불 대비 5.9% 증가한 348억불로 성장 기대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64억불(39.6%), 발전 등 플랜트 119억불(28.7%), 교통 등 토목이 132억불(31.9%)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3.1% 증가한 70백만명으로 수준이며, 도시화율도 52%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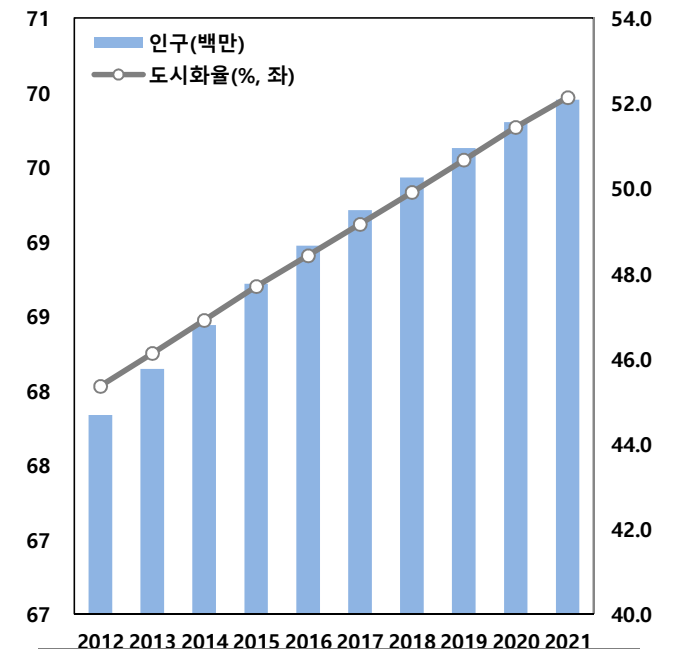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81	83	78	88	92	97	113	128	128	132
교통인프라	79	81	76	86	89	94	110	125	125	128
수처리	2	2	2	2	3	3	3	3	3	4
건축	164	166	151	151	149	152	163	173	154	164
주거용	111	112	101	102	101	103	111	117	106	112
오피스	16	17	16	16	15	15	15	16	15	16
상업시설	29	29	26	26	26	27	31	34	27	29
공공시설	8	8	8	7	7	7	6	6	6	7
플랜트	108	109	100	99	96	99	103	105	109	119
에너지	82	84	78	78	77	80	82	83	87	96
유틸리티	5	5	4	4	4	4	6	6	6	7
통신	4	4	3	3	3	3	3	3	3	3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5	4	3	3	3	3	3	3	3	3
화학시설	3	3	3	3	2	2	2	2	2	2
전기	2	2	2	2	2	2	2	2	2	2
음식료 공장	2	2	2	2	1	1	1	2	2	2
기타	5	5	5	4	4	4	4	4	4	4
총 시장규모	353	358	330	339	336	346	380	405	391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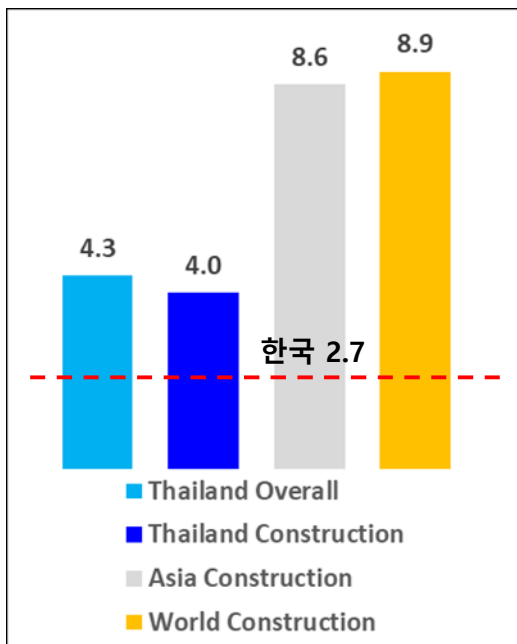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태국.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한 태국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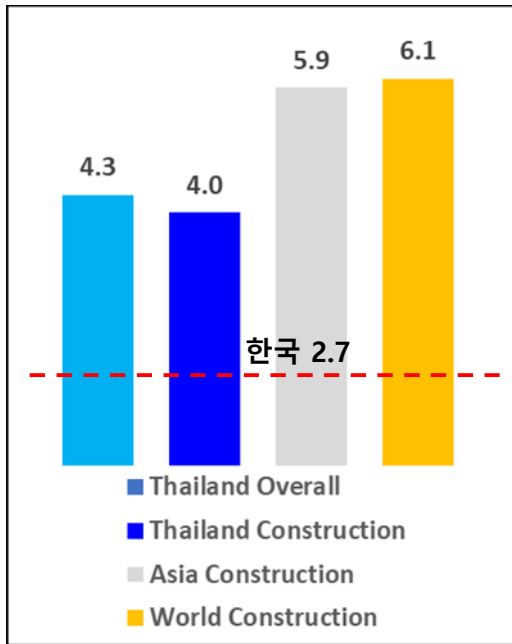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4.0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4.0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14년부터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1년에는 GDP 대비 5%대로 전망(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37.3%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21년에는 28.7%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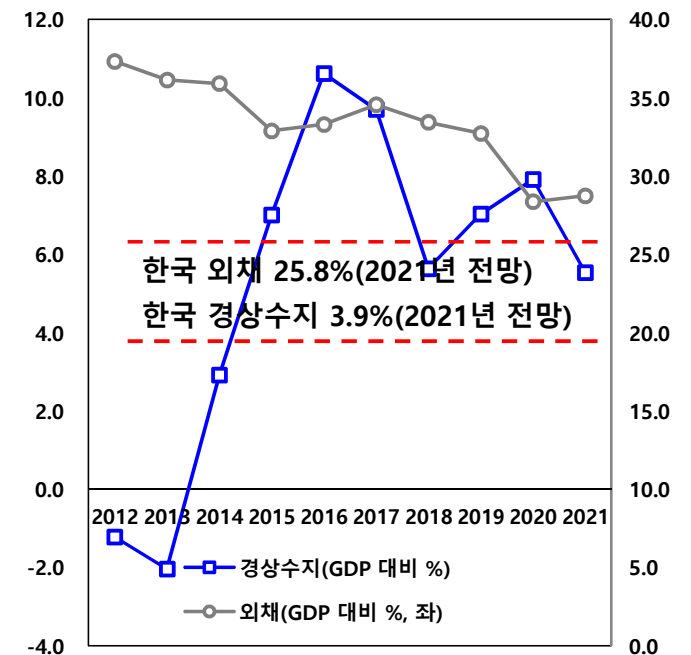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태국.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6%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376	1,163	979	393	336	80	75	1,971	302	78	5,753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0.6%	1.8%	1.5%	0.6%	0.7%	0.3%	0.3%	6.1%	1.4%	0.3%	1.3%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태국	Positive (-8.0, 4.6)	Neutral (9.0%)	Positive (4.0, 4.0)	Neutral (1.3)	414	5.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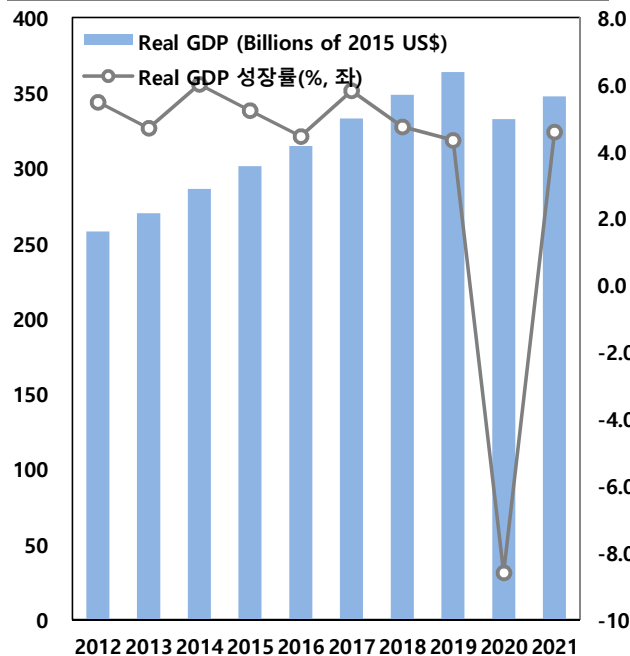
➤ 4%대 중반의 경제성장,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는 긍정적 요소임. 단, 9% 수준으로 높지 않은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과거 10년 평균 수주 비중 1.3%는 앞서 살펴본 긍정적 요소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스화력발전소, LNG 사업, 고속철도 사업기회가 풍부해질 전망

(경제) '20년 8.6% 역성장, '21년 4%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투자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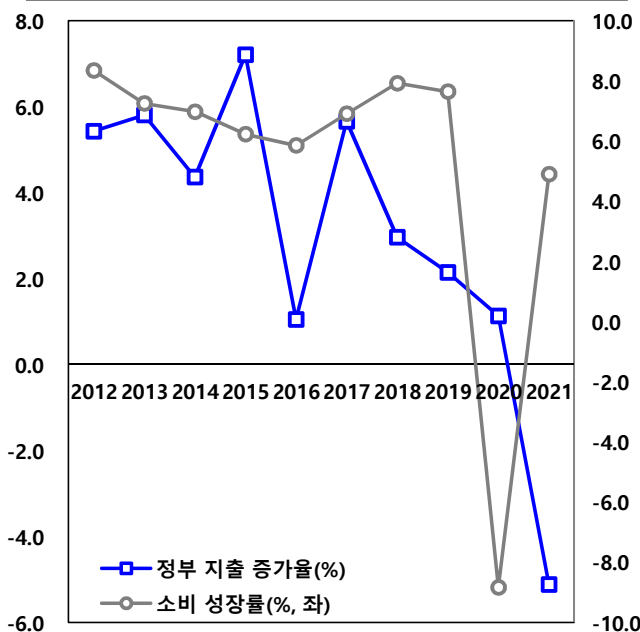
-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8.6%, 4.6%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5%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 지출 성장률은 '21년 -5.1%, 소비 성장률도 4.9%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됨. 즉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
- 고정 투자 코로나19로 '20년 -17.3%로 축소되었으나, '21년에는 16.2%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보다 다소 높은 3.7%로 예상됨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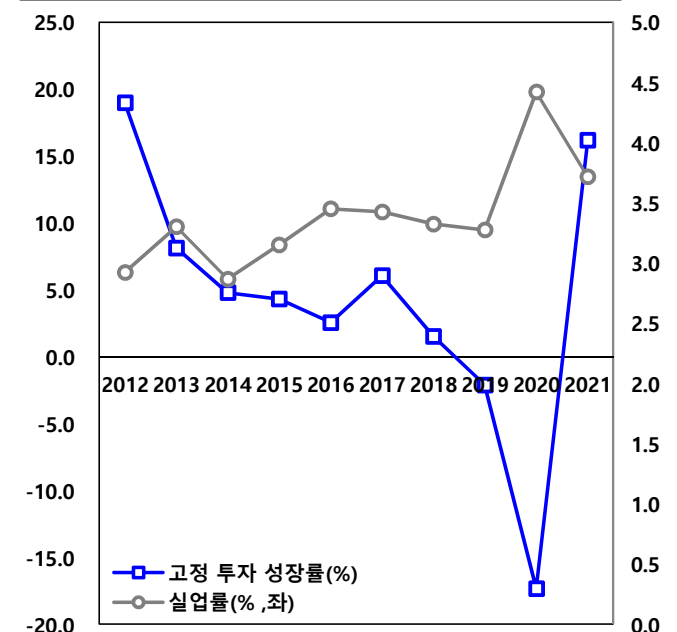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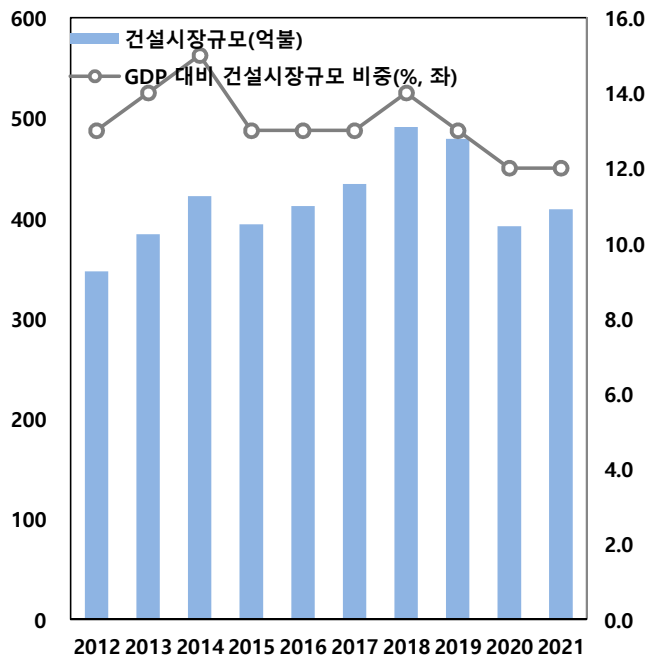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13→15→13→12%), '21년 409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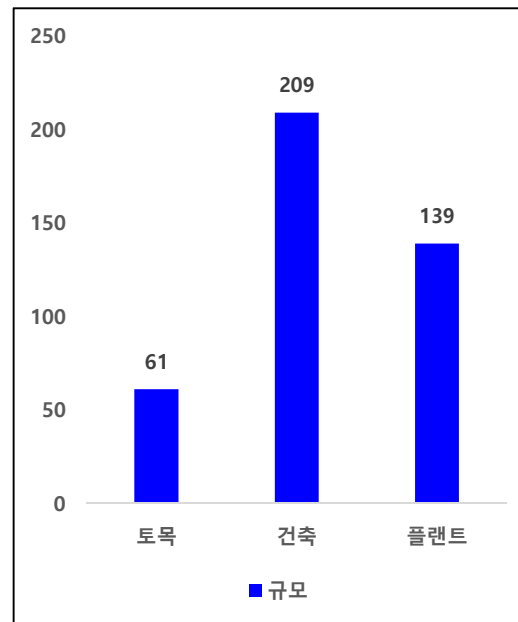
-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20년 392억불 대비 4.3% 증가한 409억불로 성장 기대
-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209억불(51.1%), 발전 등 플랜트 139억불(34.0%), 교통 등 토목이 61억불(14.9%)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2.8% 증가한 33백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도시화율은 78%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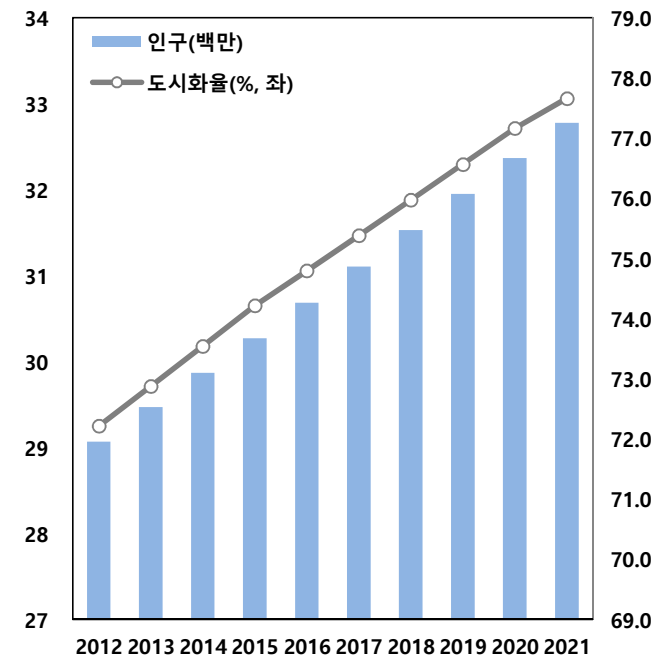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41	48	49	48	54	57	63	67	58	61
교통인프라	39	45	46	45	51	53	59	62	54	56
수처리	2	3	3	3	3	4	4	5	4	5
건축	178	198	222	205	210	220	244	237	198	209
주거용	95	111	124	113	119	127	142	137	117	122
오피스	47	49	55	52	52	53	59	60	50	52
상업시설	9	10	12	11	11	12	13	13	10	11
공공시설	27	28	31	29	28	28	30	27	21	24
플랜트	127	138	152	140	147	156	182	174	133	139
에너지	86	96	101	93	100	108	126	118	87	92
유틸리티	12	12	15	13	13	13	16	16	12	13
통신	12	14	17	15	16	17	19	19	17	17
정유시설	0	0	0	0	0	0	0	1	0	0
교통장비 등	1	1	1	1	1	1	1	1	1	1
화학시설	4	3	4	4	3	3	4	4	3	3
전기	6	6	7	7	7	7	8	7	6	6
음식료 공장	2	2	2	2	2	2	2	2	2	2
기타	4	4	5	5	5	5	6	6	5	5
총 시장규모	347	384	422	394	412	434	491	479	392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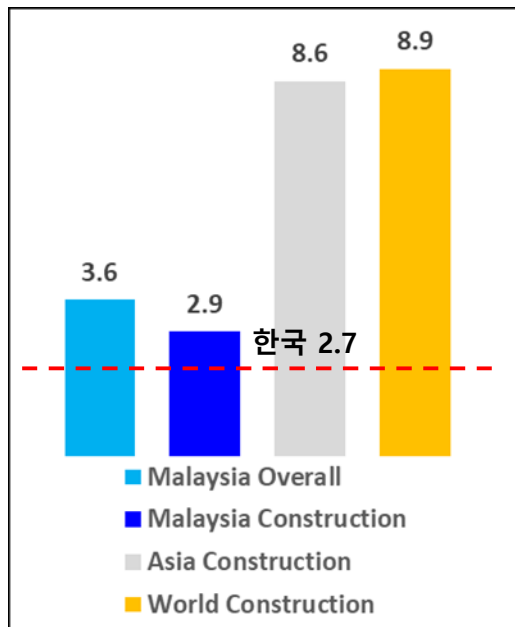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말레이시아. Risk assessment

단기, 중기 측면에서도 한국 건설시장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유한 건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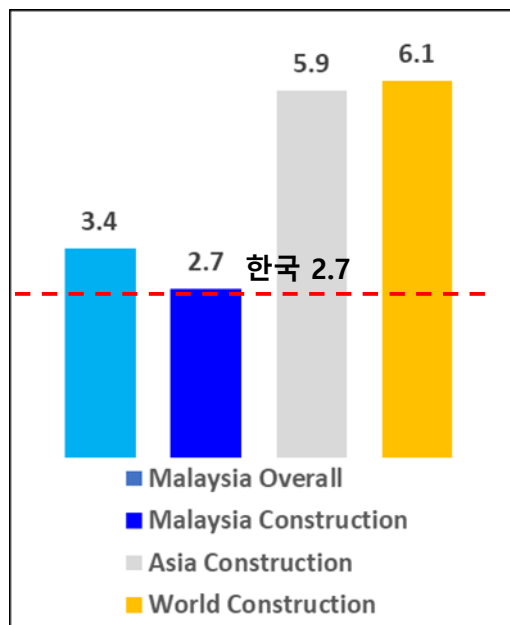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2.9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보다 양호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2.7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양호한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흑자를 기록 중이나 GDP 대비 비중은 지속 감소세로, '21년 1.0%로 전망(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7년 68.4%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1년에는 62.5%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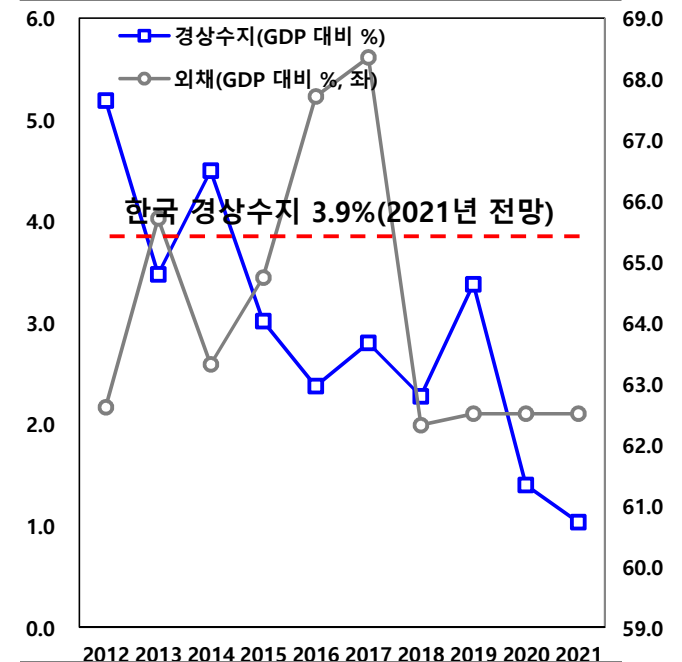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말레이시아.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6%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746	563	3,476	2,439	155	1,600	1,707	943	392	383	12,404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3%	0.9%	5.3%	3.7%	0.3%	5.7%	5.9%	2.9%	1.8%	1.3%	2.8%

[출처 : ICAK]

(종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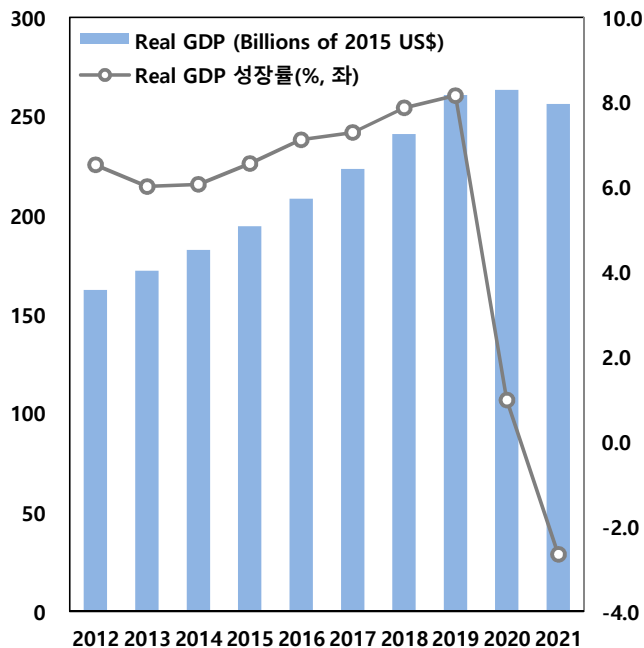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말레이시아	Positive (-8.6, 4.6)	Positive (12%)	Positive (2.9, 2.7)	Neutral (2.8)	409	4.5	-1.4

- 4%대 중반의 경제성장, 12%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 단, 과거 10년 평균 2.8%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경제) '20년 1%대 성장을 했으나, '21년 2% 후반의 역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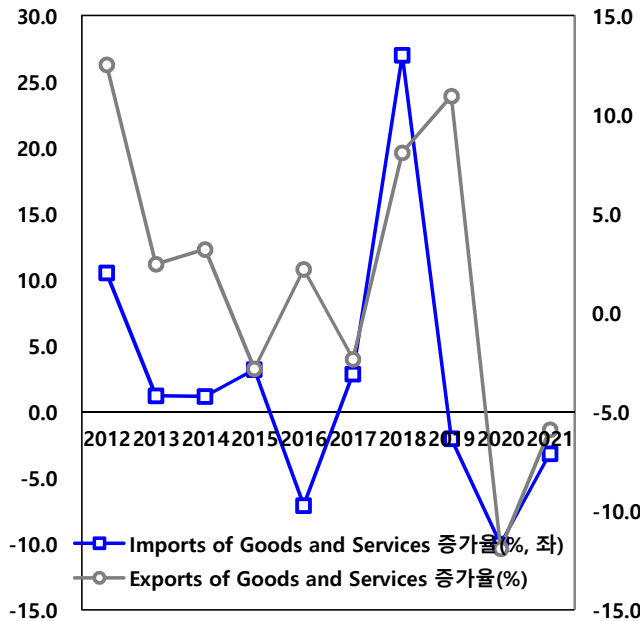
- '20년, '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1.0%, -2.7%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7~8%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 상황이 전개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조속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수출, 수입 증가율은 각각 -5.9%, -3.2%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실물 경제 침체에 따라 4%대의 실업률은 '20년 10.5%, '21년 14.0%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 지표(Real GD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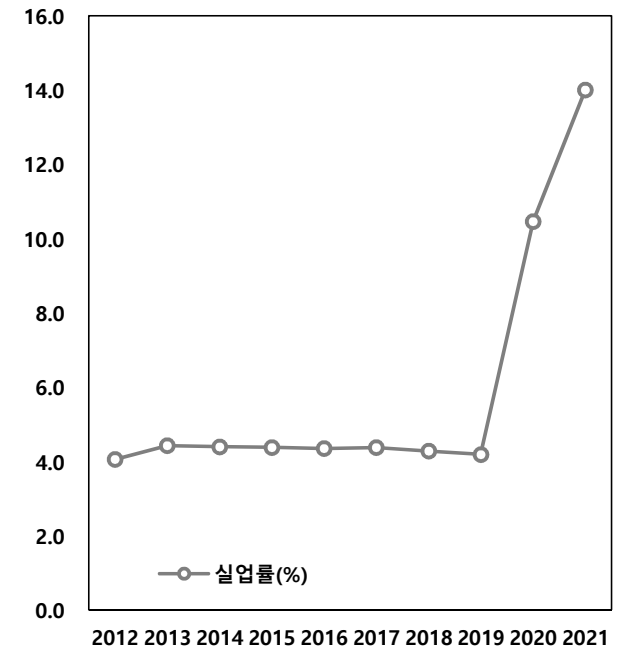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수출입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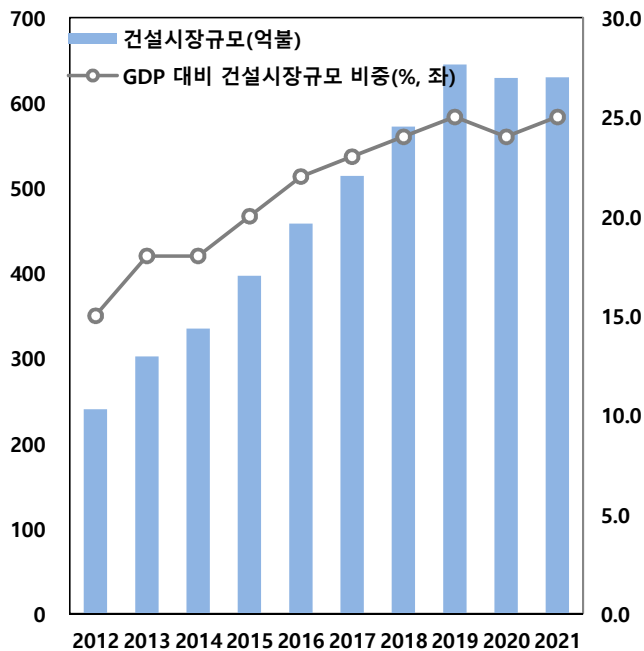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건설시장규모)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15→22→25%), '21년 630억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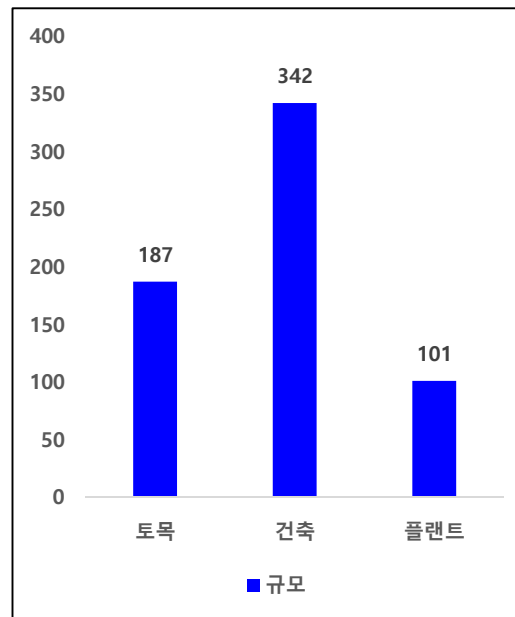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정체하고 있으나, 10년 전 대비 2.6배 커지는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20년과 유사한 630억불로 성장 기대
-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42억불(54.3%), 발전 등 플랜트 101억불(16.0%), 교통 등 토목이 187억불(29.7%)의 규모가 예상
-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driver) 중 하나인 인구는 세계 8위 규모로, 1억5천만명을 넘어섰음. 도시화율은 37% 수준으로 향후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함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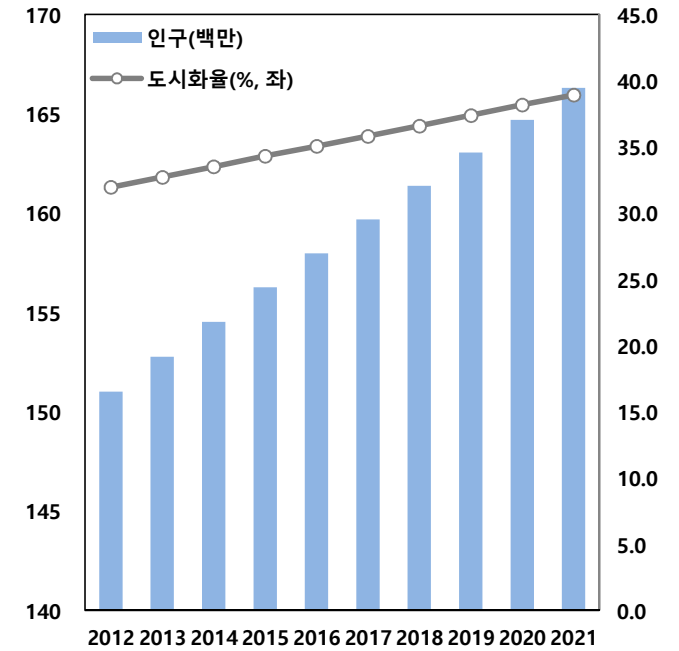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인구수 및 도시화율 (Construction Drivers)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목	59	76	85	106	124	138	155	185	186	187
교통인프라	52	66	74	93	108	120	134	159	158	158
수처리	7	10	11	13	16	18	21	26	28	29
건축	140	175	192	224	257	286	315	353	347	342
주거용	53	66	74	85	97	110	121	138	136	131
오피스	37	46	51	61	71	79	86	97	94	97
상업시설	20	25	26	31	34	37	41	45	43	40
공공시설	30	38	41	47	55	60	67	73	74	74
플랜트	41	50	56	66	76	88	101	107	95	101
에너지	20	26	31	35	40	50	57	57	47	49
유틸리티	1	1	1	1	2	2	2	2	2	2
통신	4	4	4	5	6	6	7	8	8	8
정유시설	0	0	0	0	0	0	0	0	0	0
교통장비 등	2	2	2	3	3	3	4	4	4	4
화학시설	1	1	1	2	2	2	3	4	4	5
전기	1	1	1	2	2	2	2	2	2	2
음식료 공장	2	2	2	2	2	3	3	3	3	4
기타	10	13	14	16	19	20	23	27	25	27
총 시장규모	240	302	335	397	458	514	572	645	629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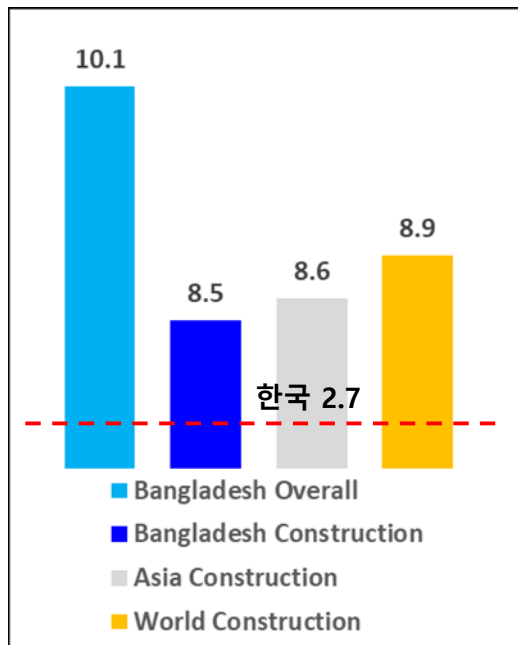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등 자료 종합]

방글라데시. Risk assessment

성장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단기, 중기 측면에서 리스크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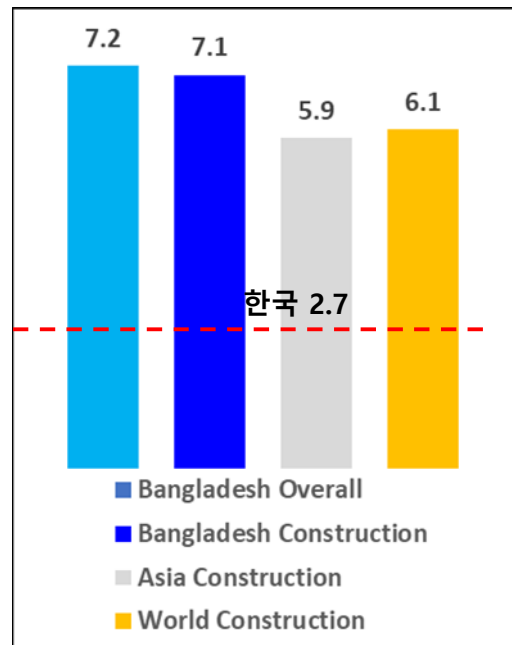
- 단기(12개월) Risk Score는 8.5로 세계건설시장(8.9), 아시아건설시장(8.6)과 유사한 수준
- 중기(5년) Risk Score도 7.1로 세계건설시장(6.1), 아시아건설시장(5.9)보다 리스크가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17년 이후 GDP 대비 1~3%, 대의 적자가 지속(한국의 '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9%)
- GDP 대비 외채(Total Foreign Debt) 비중은 '12년 22.2%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21년에는 18.8% 수준으로 예상됨(한국의 '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8% 수준)

단기(12개월) Risk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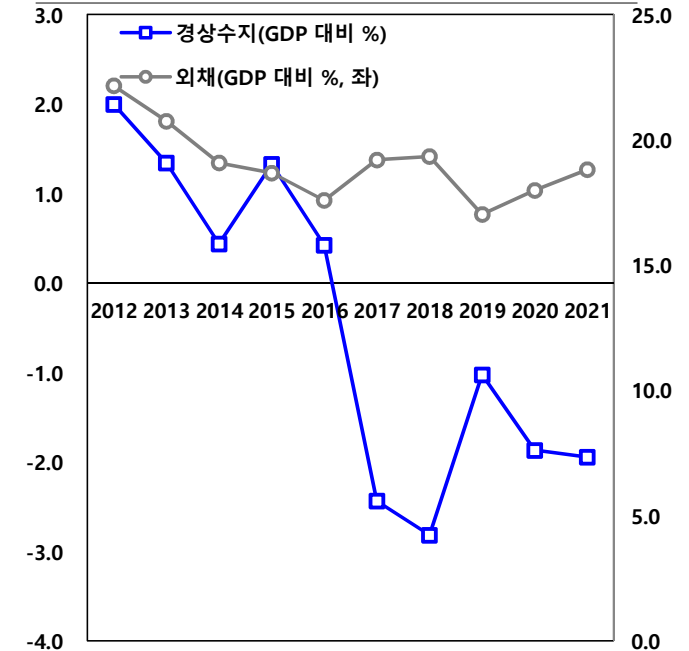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중기(5년) Risk Score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GDP 대비 경상수지, 외채 비중 추이



[출처 : IMF, OECD, IHS Markit, ICAK]

방글라데시.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1.4% 수준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가 수주액(A)	736	474	34	126	156	145	1,654	172	886	1,716	6,099
해외건설 수주액(B)	59,144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29,006	32,113	22,319	30,378	443,399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A/B)	1.2%	0.7%	0.1%	0.2%	0.3%	0.5%	5.7%	0.5%	4.0%	5.6%	1.4%

[출처 : ICAK]

(종합 전망)

구분	Economic Risk (‘20, ‘21년 경제성장률)	Pipeline Size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Risk Assessment (단기, 장기 Score)	수주 기여도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2021년 시장규모	2021년 성장률	CAGR (‘17~‘21)
방글라데시	Negative (1.0, -2.7)	Positive (25%)	Neutral (8.5, 7.1)	Neutral (1.4)	630	0.1	5.2

➤ 25%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2.7% 수준의 경제성장률, 세계 건설시장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과거 10년 평균 1.4% 수준의 수주 비중은 다소 중립적인 평가를 받게 함

➤ 하지만 최근 KIND –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사업청(PPPA)간 업무 협약을 통해 도로, 발전, 항만 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유리한 환경에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Part 5.

해외건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신기술 Trend

1)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향상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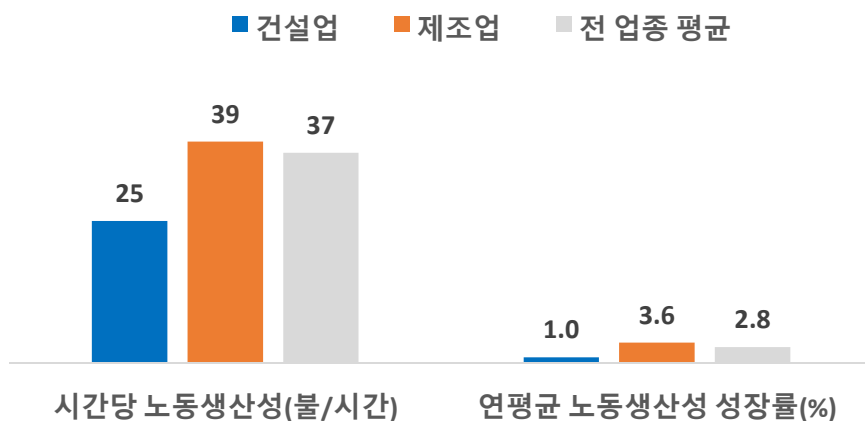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의 당위성)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뉴노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업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역 붕괴 등 혁신의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음

- 글로벌 Big-Tech.기업이 업역을 확장하며, 기존 산업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도 다양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BIM, 드론, 자동화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건설업의 생산성 이슈) 전 세계 건설업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5불 수준으로, 제조업이 39불, 전 업종 평균 37불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1995년~2014년)을 살펴 보면, 건설업의 연평균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1.0%로 제조업 3.6%, 전 업종 평균 2.8%에 비해 열위한 수준으로 분석됨. 우리나라 건설업은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5불, 생산성 성장률은 0.2~7.0% 수준의 가속기(Accelerator) Group에 속함. 즉 현재는 생산성이 열위하나 그 성장속도는 다소 높은 수준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분석



[출처 : McKinsey, ICAK 정책지원센터]

생산성 및 생산성장률 관련 Group 분류

그룹	국가	노동 생산성(불)	생산성 성장률(%)
탁월한 수행자 (Outperformer)	벨기에, 영국, 캐나다	35~45	0.2~2.0
쇠퇴하는 리더 (Declining leaders)	미국, 스페인, 프랑스	30~40	-0.5~-1.5
가속기(Accelerator)	싱가포르, 한국, 터키	15	0.2~7.0
느림보(Laggards)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10	-0.5~-2.0

[출처 : McKinsey,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코로나19 충격과 수익) 영국 시장조사기업 Globaldata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수익(Revenues)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4%, 증가로 나타났다는 쪽이 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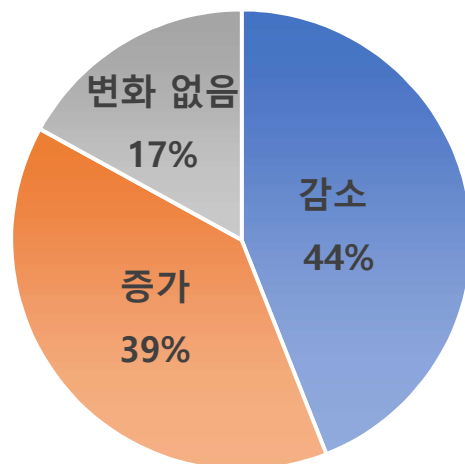
- 44%(감소) 중 매우 큰 감소라고 답한 비율은 15%, 다소 감소는 29%로 나타남. 그리고 39%(감소) 중 매우 큰 증가라고 답한 비율은 19%, 다소 증가는 20%로 나타남.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7%임

코로나19와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Trend) 관련 설문조사 개요

대상 : 글로벌 23개 산업군 CEO 등 리더 1,776명

- ✓ 지역별 : 아시아, 태평양 29%, 유럽 35%, 중동 및 북아프리카 8%, 중남미 10%, 북미 16% 등
- ✓ 산업별 : 우주, 방산 4%, 의류 4%, 자동차 5%, 금융 5%, 건설 5%, 소비 4%, 음식료 4%, 헬스케어 5%, 보험 4%, 제조 5%, 미디어 4%, 의료기기 4%, 광업 4%, 오일&가스 4%, 포장 4%, 제약 4%, 발전 4%, 전문 서비스 4%, 소매 4%, 스포츠 4%, 기술 4%, 통신 4%, 여행 4%,

코로나19가 기업 수익(Revenues)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코로나19가 기업 수익(Revenues)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세부 설문 결과

구분	결과
매우 큰 감소	15%
다소 감소	29%
매우 큰 증가	19%
다소 증가	20%
변화 없음	17%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Winners vs Losers in the COVID-19)

- 코로나19 충격은 산업별로 균등하게 가해지지 않음
- 전문 서비스, 여행업, 건설업이 가장 큰 부정적 충격을 받음

✓ 수익 감소 Top 3 업종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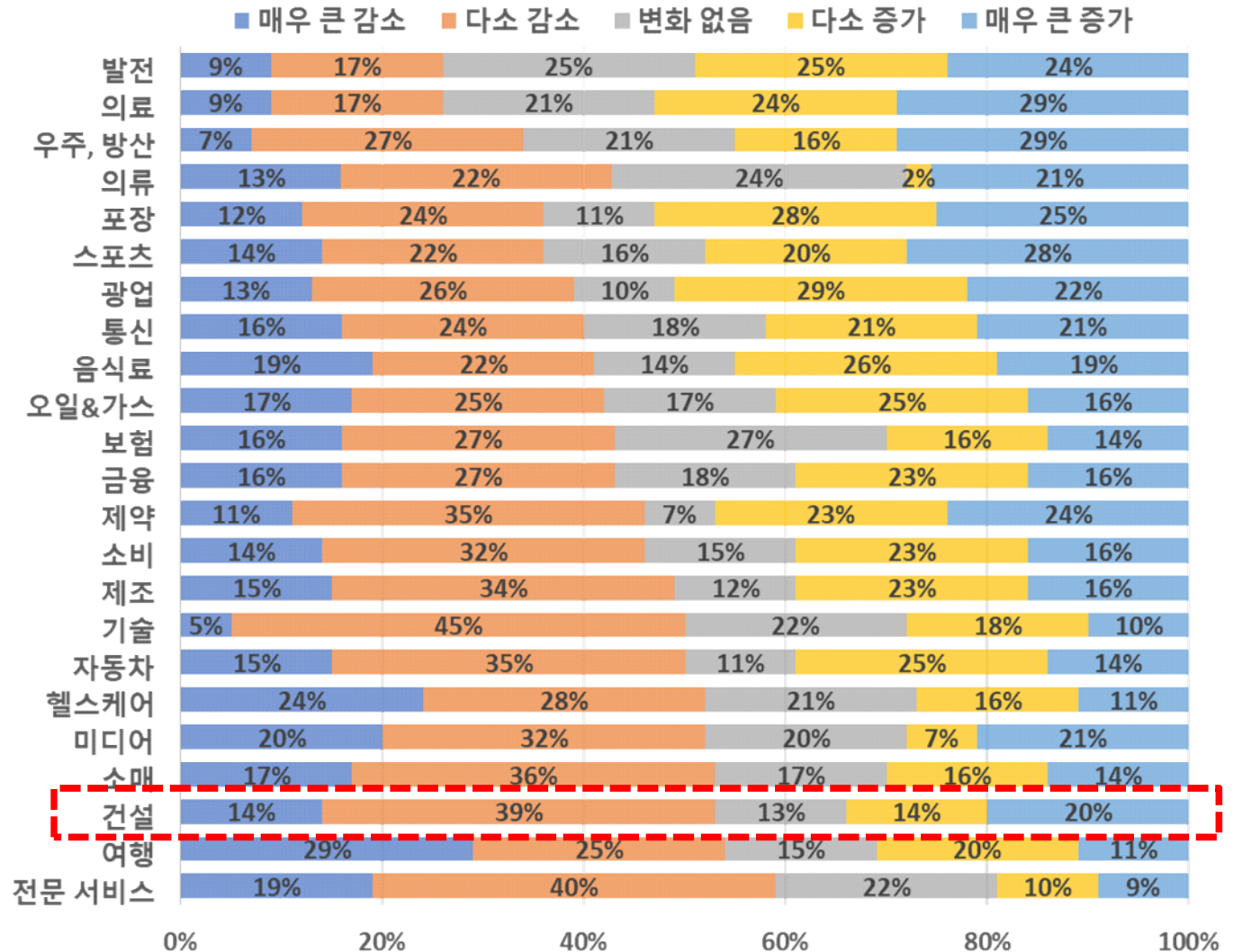
구분	'수익 감소' 응답
전문 서비스	59%
여행	54%
건설	53%

- 오히려 의료기기, 발전, 방산업은 수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음

✓ 수익 증가 Top 3 업종 응답 결과

구분	'수익 증가' 응답
의료기기	53%
발전	49%
방산	45%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수익 영향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기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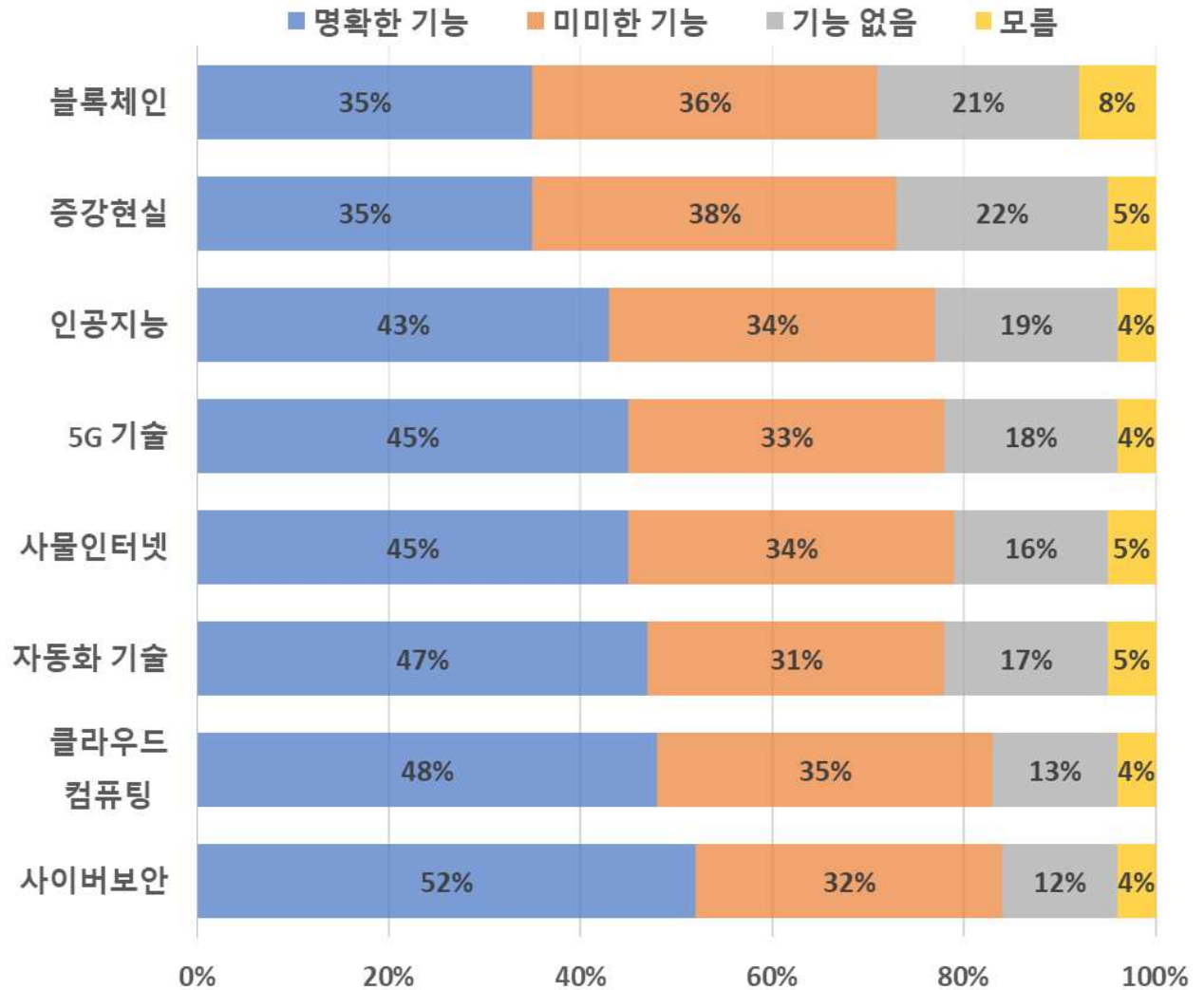
-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Key Technology)로 사이버보안(Cybersecurity)과 같은 디지털화를 꼽음

✓ 주목받는 Top 3 신기술

구분	'명확한 기능' 응답
사이버보안	52%
클라우드컴퓨팅	48%
자동화 기술	47%

-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시킨 재택근무 및 e-commerce는 사이버보안은 물론 클라우드컴퓨팅의 보편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기대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 산업계 전반에서 이해도가 높은 Top 5 기술은 5G 기술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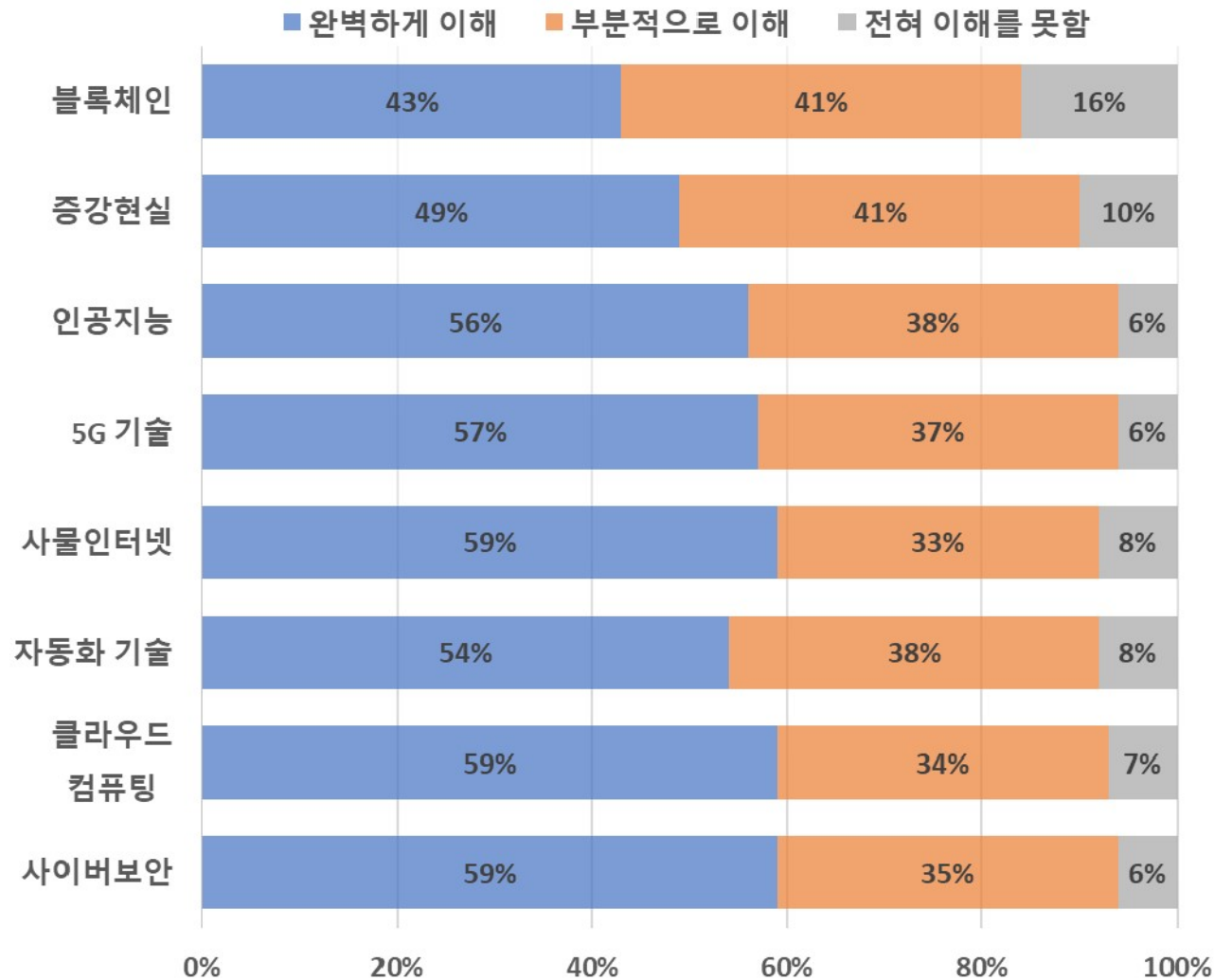
✓ 이해도 높은 Top 5 기술

구분	'이해' 응답
사이버보안	94%
5G 기술	94%
클라우드컴퓨팅	93%
자동화 기술	92%
사물인터넷	92%

- 하지만, 증강 현실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해당 기술 및 서비스 Vendor가 기업체 임원 교육시 이해도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Understanding)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신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준비도)

- 응답자의 80% 가량이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응답함

✓ 준비도 응답 상위 Top 3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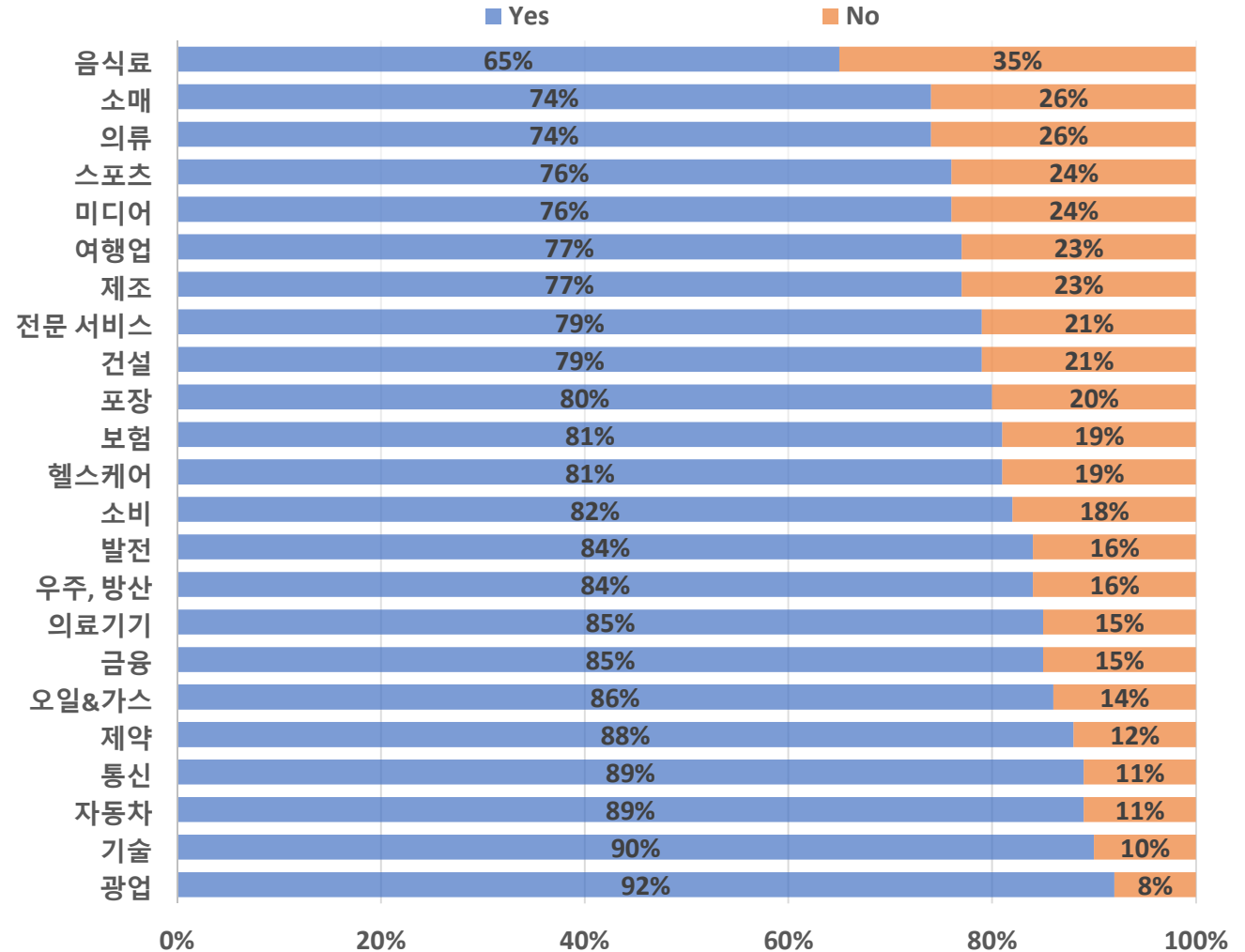
구분	결과
광업	92%
기술	90%
자동차	89%

✓ 준비도 응답 하위 Top 5 산업

구분	결과
의류	74%
소매	74%
음식료	65%

-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 정도가 과대평가(overestimate)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산업별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준비도(Readiness)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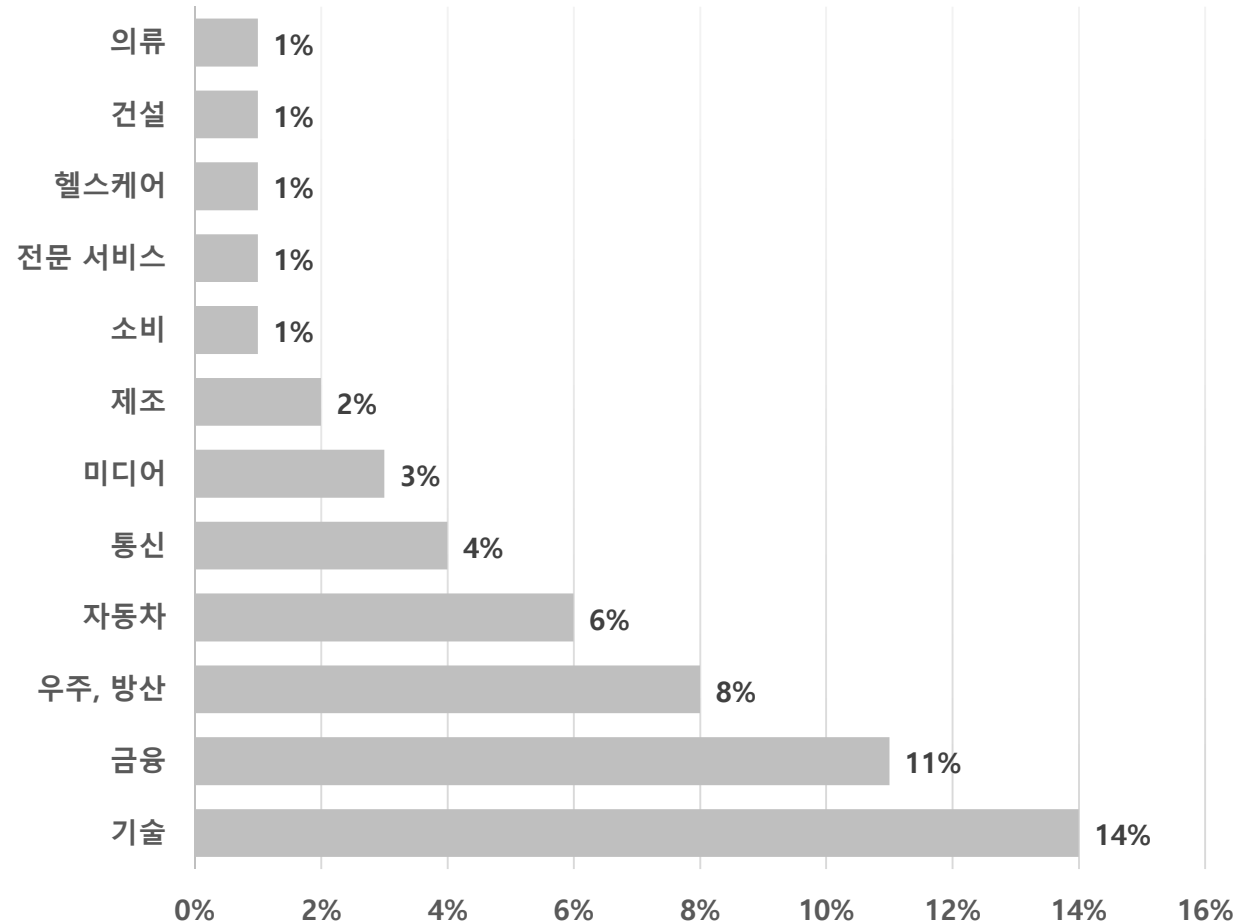
(신기술 적용 리더)

- 주요 산업 중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설문 결과, 기술 산업, 금융, 우주 및 방산 분야, 자동차, 통신 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대표적인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산업, 즉 의류, 건설, 전문서비스, 소비 분야 산업은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옴

✓ 신기술 적용 리더 Top 3

구분	결과
기술	14%
금융	11%
우주, 방산	8%

산업별 신기술 적용 리더(Leading adopter)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신기술 분야 투자 계획)

- 의료기기, 광업 분야는 신기술 투자를 늘릴 계획임을 응답한 결과가 50%를 상회

✓ 적극적 투자 예상 산업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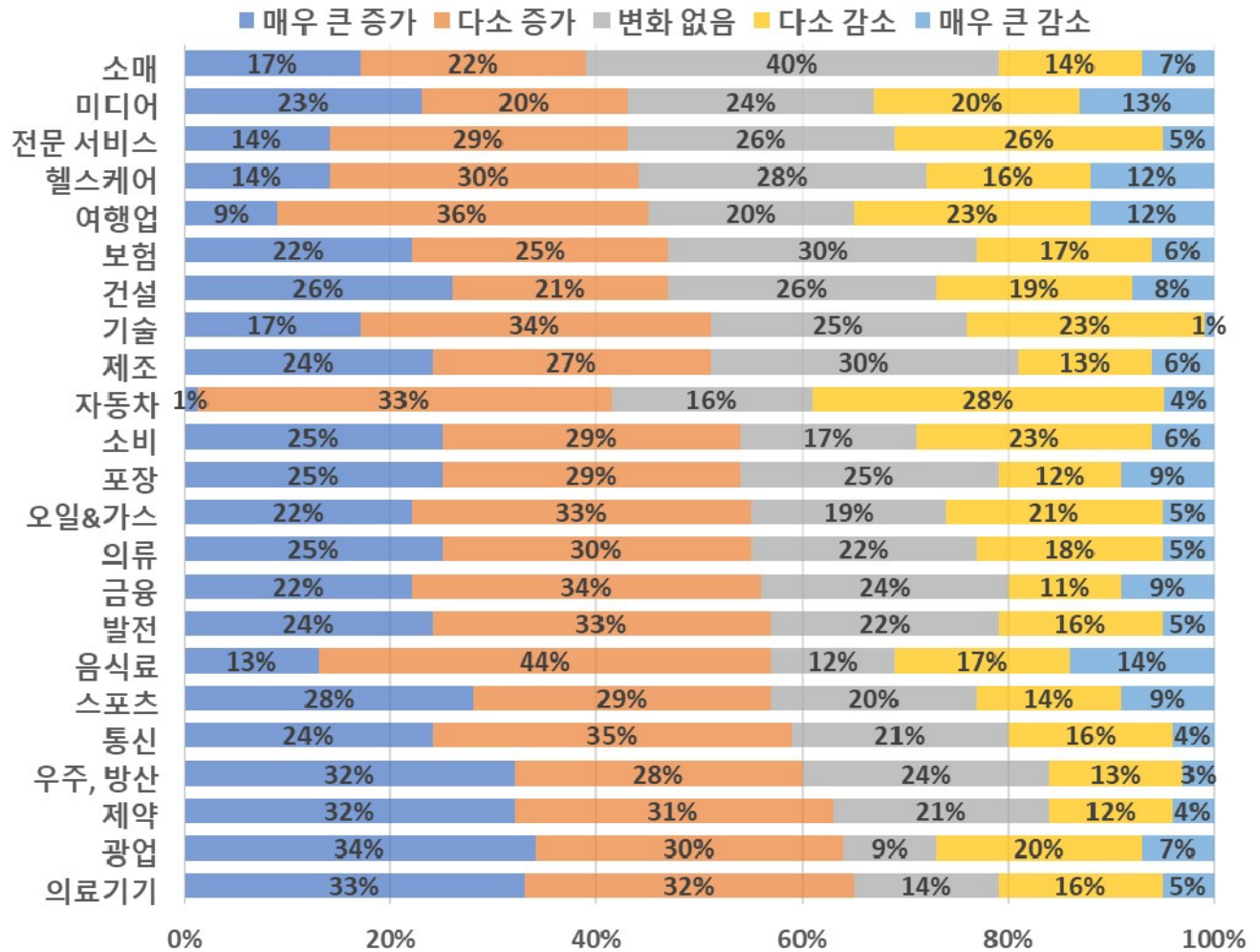
구분	'증가' 응답
의료기기	65%
광업	64%
제약	63%
우주, 방산	60%
통신	59%

- 반면, 건설, 보험, 여행 분야는 투자 계획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계획할 수 있다는 응답 다수

✓ 소극적 투자 예산 사업 Top 5

구분	'증가' 응답
소매	39%
미디어	43%
전문 서비스	43%
헬스케어	44%
여행업	45%

산업별 신기술 투자 정도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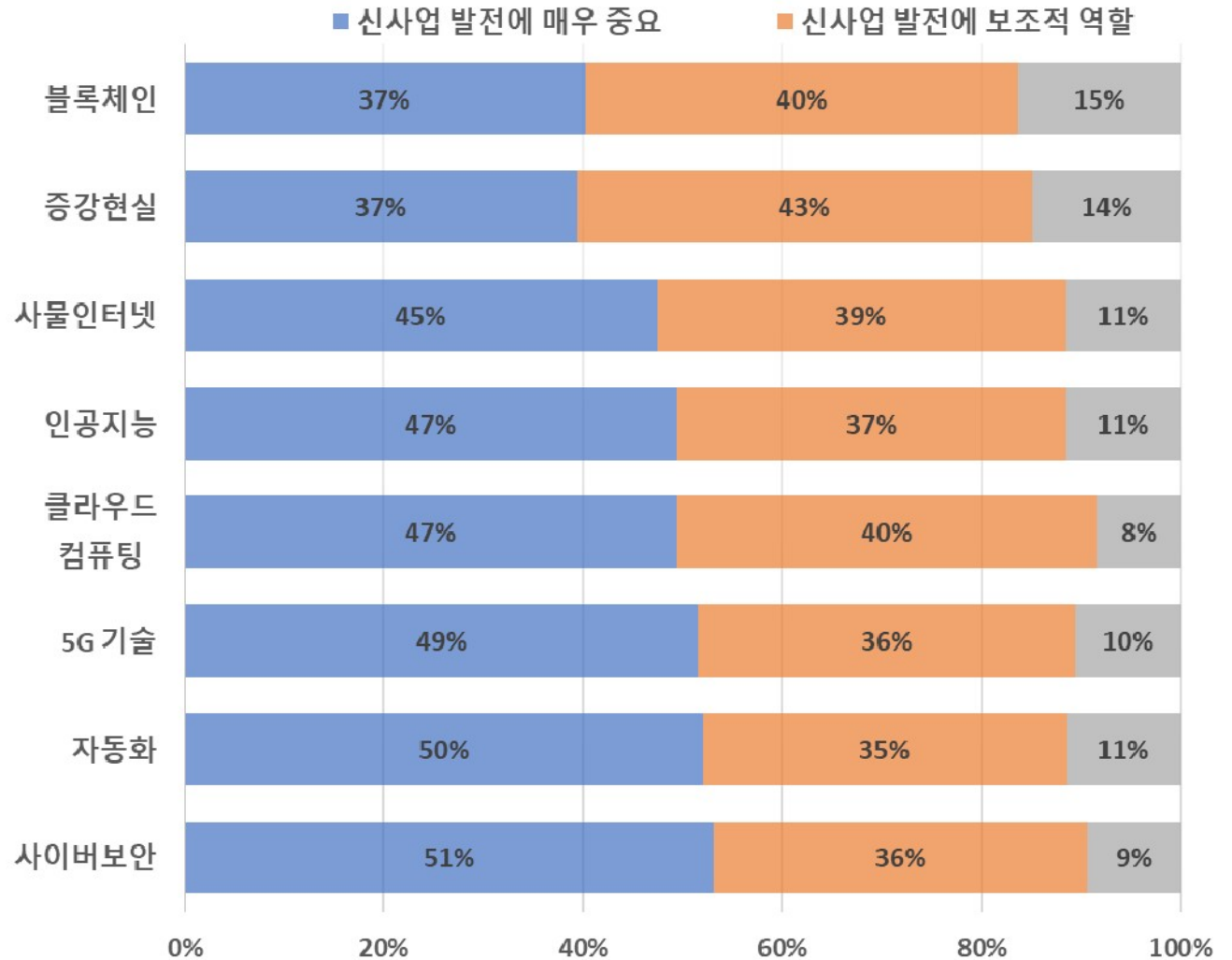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향후 신사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정도)

- 사이버보안, 자동화, 5G 등 주요 신기술은 향후 각 산업별 신사업 추진시 매우 중요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할 거라는 응답이 77~87% 수준임
- 즉, 주요 핵심 신기술이 미래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음
- ✓ 신사업 발전에 중요한 Top 5 신기술

구분	'중요' 응답
사이버보안	51%
자동화	50%
5G 기술	49%
클라우드컴퓨팅	47%
인공지능	47%

신사업 발전 관련 신기술의 역할 정도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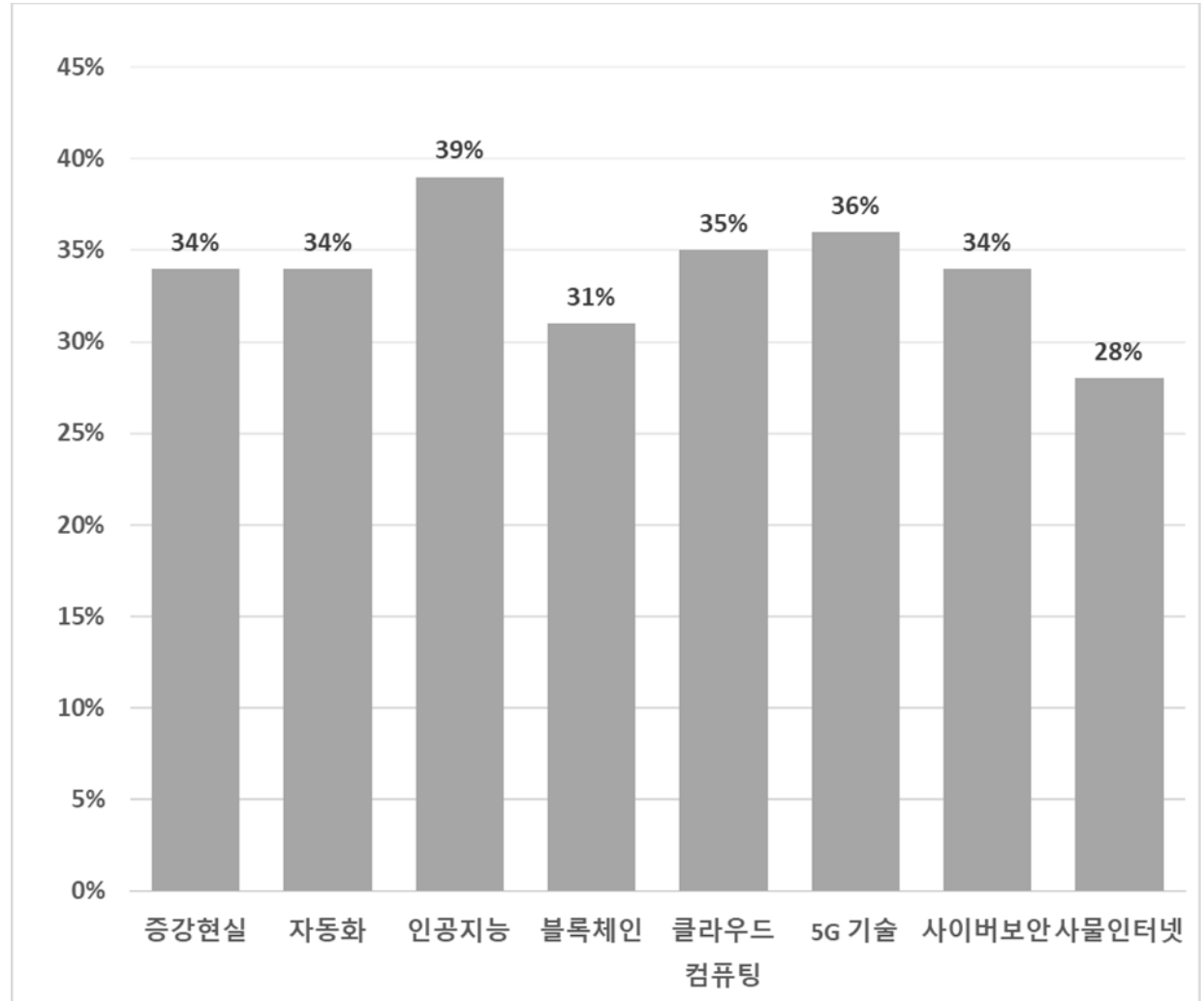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

(건설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는 신기술)

-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산업의 혁신 및 이를 통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은 필수임
- 특히 인공지능, 5G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자동화 등이 건설 산업의 혁신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각 신기술이 건설 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구분	결과
인공지능	39%
5G 기술	36%
클라우드 컴퓨팅	35%
사이버보안	34%
자동화	34%

각 신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건설 산업의 혁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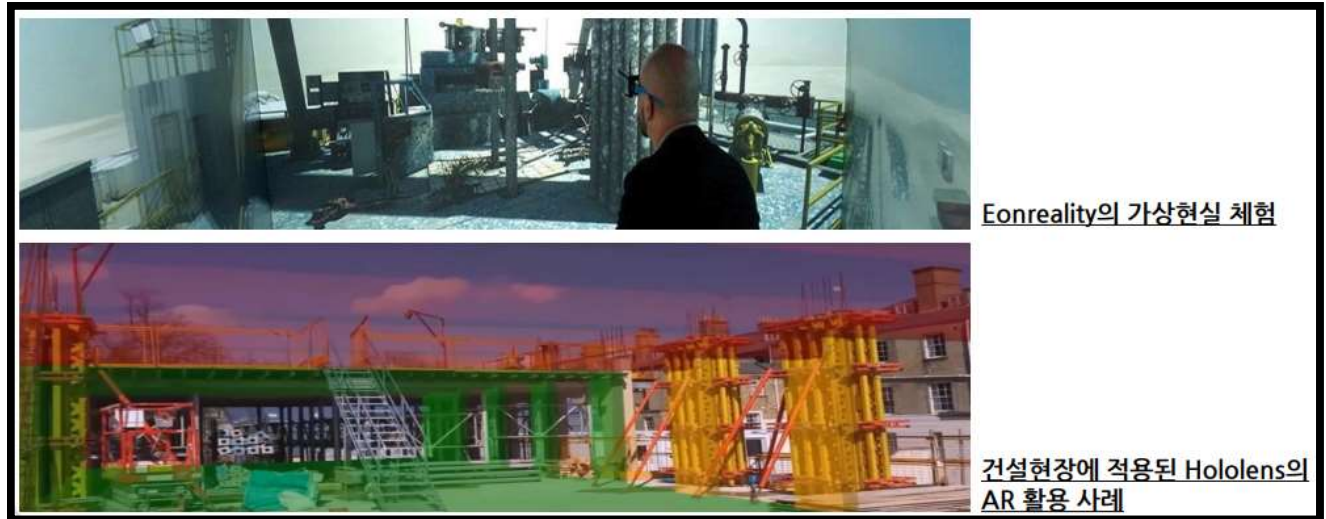


[출처 : Globaldata, ICAK 정책지원센터]

3)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

VR&AR

-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음



지능형 건설장비

- Komatsu는 지능형 건설장비를 토해 센서와 통신 단말을 통해 건설기계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3)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

Modular Construction

- BIM으로 설계된 구성요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공장에서 자동 생산 → 현장은 조립 위주
- 중국 Broad Group China사는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19일만에 57층 빌딩 완공
- 두바이 시청의 혁신 센터는 면적 640m², 높이 9.5m의 복층 건물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축물

가양동 모듈러 주택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국 스카이 미니 시티



자료 : <http://www.lavozdaily.com/2015/06/mini-sky-city-el-milagro-chino/>

10일만에 완공한 의료시설



3)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

3D Printing

- 모듈러 공법과 연계 또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팅
- MX3D사는 암스테르담에 운하를 잇는 금속 재질의 7.3m 다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건설
- 두바이 시청의 혁신 센터는 면적 640m², 높이 9.5m의 복층 건물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축물

3D 프린팅 기술의 사례: 스틸 조인트



자료 : Arup

3D 프린팅 기술의 사례: 다리



자료 : MX3D

두바이 시청의 혁신 센터



자료 : The National

Smart Slab



자료 : www.inhabita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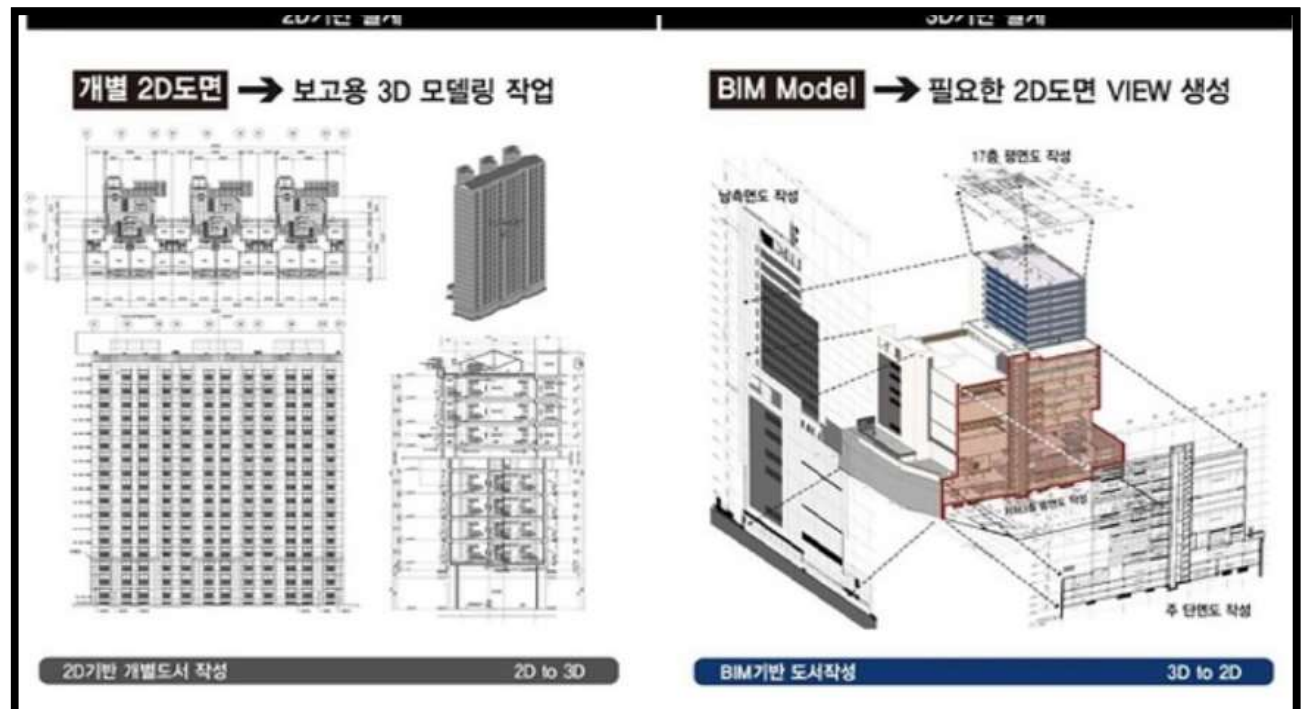
3)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

Drone

-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
- 드론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인프라 분야 금액은 452억불 수준임
- 특히,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및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유지 및 보수 단계에서도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

BIM

- BIM은 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플랫폼
- 사업 정보와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참여자간의 협업 체계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4) 우리 기업 주요 신사업 계획

기업	구분	주요 내용
A사	조류발전	국내 유일의 지지물 구조 설치 경험 및 기술 보유
	원전 해체	선진사와 제휴를 통한 해체기술 확보 노력
	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	지자체와 농업바이오웰빙 특구 내 도시 + 농업 복합도시 개발(약 30만평)
	플랫폼	데이터센터
B사	디지털 Developer	Developer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C사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드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에 지분 30% 투자
D사	기술 기반 수주	모듈 제작 확대. PC 빌딩 제작 등 제조업화 기술 활용
	자동화	자동 용접. 자동케이블 설치. 로봇 개발, 오토 라우팅 등
	프로세스 혁신	기자재 조기 확정 체제 및 프로세스 혁신
E사	해외 모듈업체 인수	폴란드 및 영국 기업 인수
	자산운용사 인수	부동산전문운용사 인수
	Precast Concrete 사업	지자체와 Precast Concrete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데이터센터	자산운용사와 협업하여 관련 경험을 축적할 계획

[출처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CAK 정책지원센터]



Part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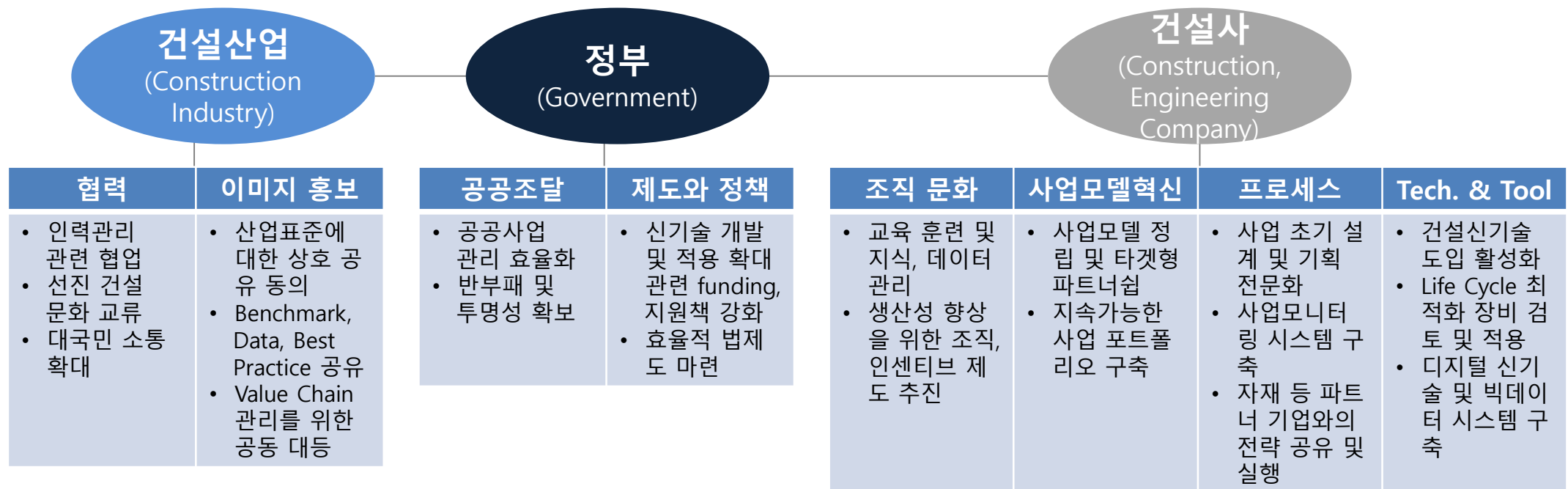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세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 '21년에는 '20년 대비 4.8% 성장한 11.3조불로 전망
- 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 유럽·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New-Normal)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플랜트 전방 산업인 에너지 업체들이 '21년부터 Oil & Gas 분야 CAPEX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PEC+의 감산 지속, 중동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중동 발주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힘
- 코로나19 충격 및 신기술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가량이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업은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및 사업관리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선 신기술 도입 등 혁신이 필요함

결론 및 시사점

- 해외건설산업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혁신을 위해 단기·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함
- ✓ **건설사** : 과감한 신기술(인공지능, 5G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자동화 등) 도입 및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수주전략(투자개발형 등 수익성 위주 등)으로 전환 가속화
- ✓ **정부** : 우수한 K-방역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부각으로 글로벌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G2G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팀코리아 적극 지원 등)
- ✓ **금융기관** : 초고위험국에 대한 수은의 특별계정 규모 증대 및 KIND의 적극적인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Mega프로젝트 수주 확대
- ✓ **유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정보수집능력 강화 및 기업 규모별 특화된 지원사업 강화 등





감사합니다.

정지훈 책임연구원
02-3406-1054
jhjung@icak.or.kr